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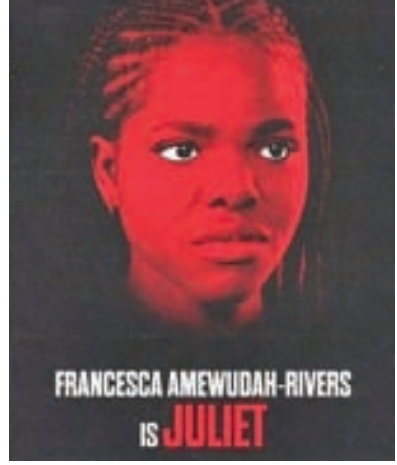
‘흑인 인어공주’ 이어 ‘흑인 줄리엣’까지 ‘블랙워싱’은 무조건 옳다?

배우 톰 홀랜드가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여자 주인공 줄리엣 역에 흑인 배우가 캐스팅됐다. 이를 두고 ‘블랙워싱(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며 작품에 흑인 등 유색인종을 무조건 등장시키는 경향을 비꼬는 표현)’이라며 인종차별적 비판이 쏟아지자 제작사에서 “비난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5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연극 제작사인 제이미 로이드 컴퍼니는 성명을 내고 “온라인 폭력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인종차별적) 괴롭힘은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연극은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톰 홀랜드가 남주인공 로미오 역에 캐스팅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5월 23일 런던의 듀크 오브 요크 극장에서 개막해 오는 8월까지 공연이 이어진다. 현재 모든 회차가 매진된 상태다.

홀랜드의 상대역에는 흑인 배우인 프란체스카 아메우다 리버스가 캐스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에 줄리엣 역으로 캐스팅된 배우 프란체스카 아메우다 리버스. [제작사 제이미 로이드 컴퍼니 인스타그램]

팅됐다. 리버스는 배우이자 작곡가, 무대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멀티 엔터테이너로, BBC 코미디 시리즈 ‘베드 에듀케이션’ 등에 출연했다.

캐스팅이 공개된 후 제작사의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는 인종차별성 발언이 쏟아졌다. “줄리엣이 흑인이 아니라 명백한 블랙워싱이다”, “로미오는

톰 홀랜드인데 왜 줄리엣만” 등 인신공격성 댓글이 이어졌다.

블랙워싱이란 미국 영화·드라마 등에서 백인 배우를 우선 기용하던 관행인 ‘화이트워싱’(white washing)에 견줘 나온 말로,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며 작품에 흑인 등 유색인종을 무조건 등장시키는 추세를 비꼬는 표현이다.

미국 연예매체 TMZ는 “그의 외모, 패션 감각 등을 비난하는 댓글은 물론 다양한 혐오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며 “그것들은 매우 비열하고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줄리엣은 허구일 뿐이다. 허구의 인물을 누가 연기하든 중요치 않다”, “흑인 배우도 줄리엣 연기를 잘 해낼 수 있다” 등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제작사는 결국 공식 인스타그램 댓글 기능을 차단하고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올렸다. 제작사는 “출연진이 발표된 후 온라인에서 개탄스러운 인종차별(발언)이 쏟아졌다”며 “이제 그만(비난을) 멈춰야만 한다”고 밝혔다.

▶ 6편 ‘블랙워싱’으로 계속 하수영 기자

삼성, 미국 보조금 66억불 받는다

삼성, 텍사스 투자 2배 이상 늘려
“상무부, 보조금 규모 잠정 결론”



삼성전자가 약 440억 달러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히고 미 상무부는 60억 달러대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 양해각서(MOU)가 오는 15일 발표될 것이라고 미 현지 소식통이 8일 밝혔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는 투자 금액을 약 440억 달러로 기존 계획보다 2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를 60억 달러대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한다.

앞서 이날 오전 미 정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66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50억 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 지원 별도)을 발표했다.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

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미래 투자 계획을 감안해 그와 비례하는 규모의 보조금 액수를 책정한다는 게 미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440억 달러를 투자하고 60억 달러대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 투자 대비 보조금 비율이 적어도 13.6% 이상이 된다. TSMC의 투자 대비 보조금 비율 10.2%보다는 다소 높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는 인텔,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다만 미 상무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리 대출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한인 교사 성추행 체포 “사탕주며 12명 만졌다”

코네티컷주 초교 5학년 담당

30대 한인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교사는 사탕을 주면서 10여 명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코네티컷주 아동가족부(DCF)에 따르면 스템포드 지역 스트로우베리힐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담당 교



사 앤드루 박(33·사진)씨가 4급 성폭행, 미성년자 상해 위험 및 불법 접촉 등 총 36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스템포드경찰국은 지난 5일 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코네티컷주 노워크 지역 인근 아파트에서 박씨를 체포했다.

스템포드경찰국 제리준스 형사는 “2019년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온 박씨는 최소 11~13세 사이 여학생 12명을 성추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와 아파트에서 압수한 증거 물품 등을 토대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며 포옹,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을 요구했다. 피해 학생들은 조사 과

정에서 박씨가 만진 신체적 부위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네티컷주검찰엘리자베스 모란 검사는 “박씨가 몸을 더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심지어 몸을 가리기 위해 가방을 낮게 메기 시작했다”며 “박씨의 행동은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이미 여러 학생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한 피해 여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박씨를 피하려다 수업에 지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

작됐다.

이와 관련, 스템포드교육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 나서 곧바로 아동가족부에 신고했고 박씨에게 행정 휴직 처분을 내렸다”며 “현재 수사 당국 요청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박씨에게는 17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코네티컷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경우 한 살 된 딸을 데이케어에 데려다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택 연금 조치를 받게 된다.

장영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여기 물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5 in 1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Aetna, MassMutual, Colonial Life Insurance Company, National Western Life, Alliant, LSW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간호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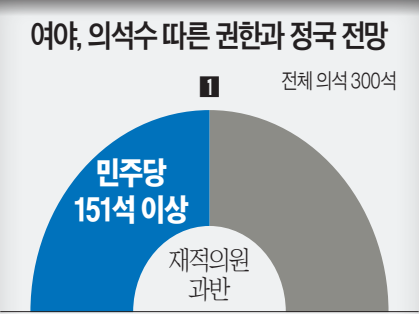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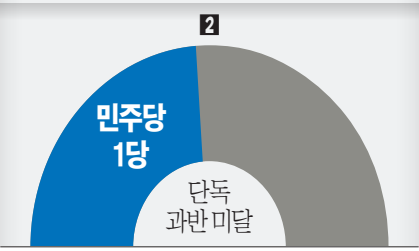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민주당 과반면 입법권 쥐고 정부 견제 여당 1당면 국정운영에 숨통 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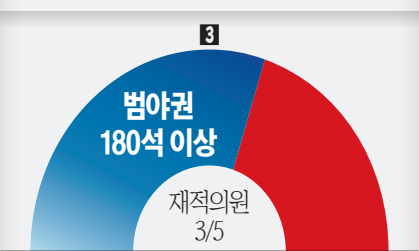
의석수별 22대 국회 정국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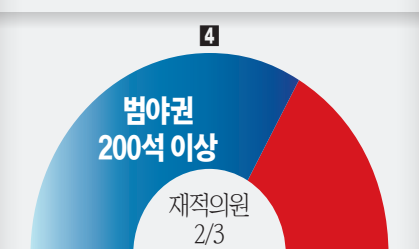
- 국회의장직 확보
- 예산안·법안·임명동의안·체포동의안 의결
-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탄핵소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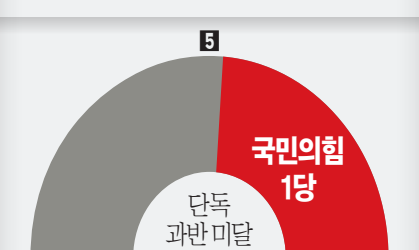
- 민주당·국민의힘, 정국 주도권 다툼
- 조국혁신당 약진하면 위상 급등



- 법률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 헌법개정안 및 대통령 탄핵소추
-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 국회의원 제명



-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할로
- 한동훈 부상, 이재명 타격

4·10 총선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에 따라 의회 권력 지형이 새롭게 재편되면서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국정 운영의 활로를 열 수도 있다. 각종 법안이나 예산안 통과, 개헌의 운명도 의석수에 달려 있다.

1 민주당 단독으로 151석 이상
정치권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수치 등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관건은 단독 과반 의석 확보 여부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이 더불어민주당연합 의석을 합해 151석 이상의 과반을 차지할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입법권을 움켜쥐게 된다. 먼저 의사일정 확정과 안건 직권상정 등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간다. 당에선 6선을 노리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후보와 친명계 핵심인 조정식 경기 시흥을 후보가 일찌감치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부·여당은 민주당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게 확 쪼그라든다. 단독 입법과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감사원장 등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151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겼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간주된다. 이 대표는 유세 현장에서 “151석이 목표”라고 강조해 왔다.

민주당 과반 안되는 1당 차이

민주당 원내 1당에 오르더라도 단독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야권으로선 선택지가 다소 복잡해진다.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야권 연대가 필수로 등장하게 된다. 이 경우 이번 총선 돌풍의 주역이라고 할 만한 조국혁신당의 몸값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지지세가 실제 득표율로 연결될 경우 캐스팅 보트를 쥐고 몸집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조진만(정치학) 덕성여대 교수는 “1당인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정국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그림이 펼쳐질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에 따라 국회부의장 자리도 넘볼 수 있게 된다. 국회법 1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당선된다. 가깝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박주선,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맡았다.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현 민주당)와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합종연횡 때 자민련 소속인 박준규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된 전례도 있다.

조국혁신당이 무소속이나 더불어민주당 연합 내 시민단체·진보당·새진보연합 세력과 연합해 별도의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교섭단체는 국회 각 상임위에 간사를 둘 수 있다. 국회의 각종 현안은 간

사 간 협의로 풀리는 경우가 많다. 조국혁신당 측 간사가 협상 테이블에 합류하면 ‘야권 2대 여권 1’의 구도가 된다. 조국혁신당이 1호 공약으로 내건 ‘한동훈 특검법’ 등 각종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의미다.

범야권 180~199석 땀 지름과 비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이 선전해 ‘범야권 180석’을 얻으면 여당의 입법 지연 작전을 무력화할 수 있다.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법안이 상임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되면 범야권 상임위원들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민감한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도 가능하다.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24시간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는 범야권이 180석을 넘겼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미 휘두른 카드다.

180석이 무소불위일 것 같지만, 여권엔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마지막 견제 카드가 남아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가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여당은 101석만 돼도 재의결을 막을 수 있다.

범야권 200석 넘으면 정부·여당 위기

이 같은 정부·여당의 마지막 카드도 힘을 잃게 되는 건 범야권이 200석을

넘겼을 때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무의미해지고, 범야권은 완력으로 원하는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법률로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여당의 정치적 공간은 국회가 아닌 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하면서 민심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야권을 막을 수단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범야권 200석 이상이면 헌법개정안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다. 다만 개헌을 하려면 국회 통과 이후 국민투표(유권자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를 거쳐야 한다. 탄핵소추안도 대통령의 명백한 위법이 증명돼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원내 1당 차이

국민의힘이 야당 우세 전망을 뒤집고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국정 운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과반 의석에 못미치게 되더라도 “국민이 국정안정론에 힘을 실었다”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은 국민의힘이 연을 의석수와 직결돼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한 위원장의 정치적 성공의 기준점은 135석”이라며 “이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이라고 설명했다.

손국희 기자

여야 “투표율 높으면 우리가 유리” 전문가 “연령별 투표율이 변수”

“꼭 투표” 70대 94.6%, 20대 50.3%

선거일을 하루 앞둔 9일, 여야 지도부의 딱 한마디는 같았다. “투표해 달라”는 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꼭 투표해 정권 실패를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충남 서산-태안, 광주-부여-청양,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포천-가평, 경남 진주갑 등을 “대 조립전지”로 꼽은 그는 “손 닿는 모든 연고자들

찾아 투표를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본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딱 한 표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4년 내내 일하지 않고 방탄만 하려는 세력, 줄줄이 엮여서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에게 내 나라,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로 최종 투표율 상승이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는 동상이몽을 풀었다. 한병도 총선전략본

부장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견제와 균형, 정권심판에 대한 여론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관계자는 “야권이 총결집했던 지난 총선 투표율(66.2%)을 넘긴다는 건 ‘사이보스’ 등이 야당 독주를 견제하러 나섰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엔 투표율이 높으면 ‘20~30대가 투표를 많이 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단순화가 가능했지만,

지난 대선 등 최근 선거에선 이에 반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지지 성향과 적극 투표 의향 등을 고려한 연령별 투표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 확정일(3월 29일) 기준 4425만1919명이다. 60세 이상이 1411만53명(31.89%)이다. 지난 4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차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70세 이상(94.6%), 60대(89%), 50대(87%), 40대(81.7%), 30대(68.8%), 18~29세(50.3%) 순이었다. 김기정 기자

워싱턴 날씨 (°F)

11일(목)	73-61	14일(일)	79-62
12일(금)	64-51	15일(월)	81-56
13일(토)	67-48	16일(화)	71-55

4월 10일(수) 77~61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케어피플 홈헬스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진,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케어피플 홈헬스
버지니아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메릴랜드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4/15-4/19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

한·미서 최고훈장... '한국전 영웅' 퍼켓 별세

중대 지휘, 중공군 6개 대대와 사투 중상 입었지만 전역 거부



퍼켓 대령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다. [AP=연합뉴스]

한국전쟁에서 맹활약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았던 펄프 퍼켓 미국 육군 퇴역 대령이 8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지아주 콜럼버스의 자택에서다. 그의 사망 소식은 콜럼버스 국립보병박물관이 공식 발표했다.

퍼켓 대령은 1926년 조지아주 티프톤에서 태어났다. 1945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졸업한 이듬해(1950년) 당시 일본 오키나와에서 창설된 제8 레인지 중대 지휘관에 자원해 부사에 왔다.

평안북도 운산의 205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는 중대원 50여명을 이끌고 중공군 6개 대대와 사투를 벌였다. 세 번의 시도 끝에 결국 고지를 점령했지만, 이 과정에서 허벅지에 수류탄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었다. 미국으로 돌아가 부상을 치료한 그는 제대를 거부했다. 제 101 공수사단 중령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등 계속 활약을 하다가 1971년 대령으로 전역했다.

퍼켓 대령은 지난해 4월 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한국 대통령이 외국 방문 시 현지에서 무공훈장을 수여한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 참석한 그의 휠체어를 밀고 무대로 나아가, 직접 가슴에 훈장을 달아줬다. 앞서 2021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도 받았다.

박형수 기자

취재 수첩

미국에 홀로서 있는 '원주로' 표지판

버지니아주 남부 도시 로아노크. 한글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원주로'였다. 1964년 원주와 자매결연을 한 로아노크시가 1982년 220번 도로 500m 구간에 명명한 곳이다. 원주 시청 앞에도 '로아노크 사거리'가 있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한국인들은 71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 앞에 자연스럽게 '철통같은(iron clad)'이란 말을 붙인다. 그러면서 동맹은 당연하다고 믿는다. 시민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로아노크 사거리처럼 말이다.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으로부터 당연한 얘기를 들었다. 그는 본지 인터뷰에서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분단 상황에 대해선 "일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4조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헌법 4조가 당연하지 않게 됐다. 정권에 따라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세 차례 김정은을 만났지만 실패했다. 그럼에도 그를 잘 아는 인사들은 트럼프 재집권 시 김정은과의 협상이 재개될 거라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트럼프의 새 설계도에선 '운전자'를 자처했던 한국의 역할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강태화 워싱턴 특파원

한반도 핵 정책을 총괄했던 리처드 콜리스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부차관은 "한국은 참관자(observer)로 협상장 옆자리(side saddle)에 앉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발언권은 있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과 밀 합의 하려는지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북한 주민도 그런 이상주의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

과거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한 적이 있는 볼턴에게 "그럼 전쟁을 해야 하나"고 물었다. 그는 즉답을 피했다. 대신 "북한 주민에 적대감을 추구하지 않고 정권을 압박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방치해 왔다"고 답했다.

2012년 원주시는 주민 조사를 통해 자매결연의 상징이던 '로아노크 광장'을 폐쇄했다. "자매도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주민 상당수는 광장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 그러나 외교에서 당연한 것은 없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를 둘러싼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임하기를"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 월례회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회장 김택조 목사)가 9일,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목사 류응렬)에서 월례회를 개최했다.

예배는 방혜식 목사의 인도로 오쾌한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다. 이날 설교를 전한 류응렬 목사는 시편 23:1-6절의 말씀을 인용해 "어른이 계시다는 것은 중심에 든 듯한 기동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다"면서 "어르신 한분이 돌아가시면 대학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가 9일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말이 잇듯 책을 통해 배우는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삶은 우리에게 더 생생한 가르침을 준다"고 말했다.

류 목사는 "원로목사님들 모두 건강 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격려와 가르침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택조 목사(전

15대 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이어갔다.

원로목사회는 다음달 21일(화), 메릴랜드 저먼타운 소재 헬로십 교회(담임 목사 김대영)에서 월례회를 진행한다. 김윤미 기자

제 64회 미국 장로회 한인 수도회 정기노회

제 64회 미국 장로회(PCA) 한인 수도회 정기노회가 지난 8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스테이션 워싱턴목양교회(담임목사 안성식)에서 열렸다.

워싱턴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인 수도노회는 22개 교회, 104명의 목회자들이 섬기고 있다.

백신종 목사(벤엘교회)의 뒤를 이어 신임 노회장이 된 안성식 목사는 '목회의 핵심'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역경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목회자의 영권 회복과 이를 위한 기도"라고 강조했다. 안 목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는



PCA 한인 수도회 정기노회가 8일, 워싱턴목양교회에서 열렸다.

비결이다"고 강조하며 "목회자나 성도나 땅에 뿌리 내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묵묵히 전진하자"고 격려했다.

한인 수도회는 한어권 목회자와 영어권 목회자들이 함께 노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봄-가을 정기 노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세계한인의날

유공 포상 후보자 공모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오는 10월 5일인 '제18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공모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 재외동포 권의 신장 ▶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국내

유공자로 ▶개인 ▶단체 대상이다.

포상 훈격은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재외동포청장 표창이다.

포상을 받으면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훈격·분야와 무관하게 각각 ▶훈장 7년 ▶포장 6년 ▶표창 3년 이내 다시 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택 - 오미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SUPER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SUPER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비자 수수료 인상 외국인 채용 기업 고민 저임금·장시간 노동 개선 촉구

지난 1일부터 적용된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외국 배우를 고용하는 할리우드 제작사부터 중가주와 북가주에 걸친 농업계나 호텔 등 관광업계까지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비자 수수료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대기시간까지 늘어나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예로 영화 촬영을 위해 외국 배우를 고용하려는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그동안 뻣뻣한 촬영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2주면 발급받을 수 있는 급행처리 방식을 택해 비자를 수속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급행 수속비가 기존의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12% 오른 데다 비자 발급 기간도 2주에서 3주로 늘어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미국 내 지사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필요한 주재원 비자(L-1)도 고용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2000달러 가까이 들어 미국에 직원 파견을 망설이는 회사도 생겨날 전망이다. 비자 청원서(I-129) 수수료가 기존의 460달러에서 3배인 1385달러로 뛰었고, 이와 별도로 새로 바뀐 운영 규정에 따라 600달러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농장이나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시즌에 맞춰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발급받아야 하는 임시 취업비자(H-2A/2B) 역시 수수료가 기존의 460달러에서 2배가 넘는 1090달러와 1080달러로 각각 오르면서 농장 및 스포츠 비즈니스 업주들도 당장 울며부터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도 기존의 460달러에서 780달러로 올라 소규모의 기업체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신청비 외에 변호사 비용, 급행처리 신청비 등까지 고려하면 외국인 직원 1명을 채용하는데 적어도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며 "이는 소규모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미정책재단의 스투어드 앤더슨 사무국장은 "비용은 늘어났지만, 실제 고객들이 받는 혜택은 전혀 없는 조치"라며 이민서비스국(USCIS)의 수수료 과다 인상에 대해 지적했다.

장영화 기자

타운 한인 콘도에 미행 강도... 폭행후 금품 강탈

차 따라 들어가 주차장서 절도
3인조 강도에 중국계 주민 피해
경비원 출동하자 차 타고 도주
올림픽서 미행 강도 LA서 최다

LA한인타운 고급 콘도에서 미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4시 50분쯤 6가와 사우스 베렌도 스트리트 소재 6층짜리 콘도 주차장에서 중국계 남성이 강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

본지가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콘도 주차장 게이트가 열리고 페라리 차량이 들어가자 곧이어 지프 차량 한대가 바로 뒤따라 들어갔다. 이어 지하 2층 주차장에 도착한 남성에 지프 차에서 내린 강도들이 다가와 총을 들이밀며 위협했다. 남성이 뒷걸음질치며 물러서자 강도 2명은 남성의 뒷덜미를 잡고 총으로 내려찍는 등 폭행을 가했다. 다른 강도 1명은 남성의 차 안을 뒤지며 물건을 빼냈다.

피해 남성은 강도들과 맞서며 몸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이어진 영상에선 머리에 피를 흘리며 상의가 반쯤 찢어진 피해 남성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올라가기 위해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CCTV에 잡힌 사건 현장. 세 명의 용의자들이 피해 남성(오른쪽)을 폭행하며 위협하고 있다.

[앤디 김 사장 제공]

이내 강도 3명이 뒤따라와 남성의 뺨을 때리며 위협했다. 이때 CCTV를 확인하고 황급히 내려온 한인 경비원 유근범씨가 소리를 지르자 강도들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암 경비회사 앤디 김 사장은 "담당 경비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3단봉을 들고 서둘러 쫓아 내려갔다"며 "경비원이 대처를 잘했다. 만약에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더 일어났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처음에 피해자와 뒤따라온 친구 간의 싸움이 벌어진 건 줄 알았지

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곧장 대응했다. 김 사장은 전했다. 이어 유씨는 현장에 내려가서야 강도가 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뺏겼고, 용의자들은 시계까지 뺏으려 했지만 저항하며 주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부상이 크진 않지만, 병원에 다니며 치료 중이다"고 전했다.

30대 중국계로 알려진 피해 남성은 용의자들과는 일면식이 없으며 코스트코를 다녀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

로 알려졌다. 용의자들은 20~30대의 백인 혹은 히스패닉계로 추정되며 타고온 지프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이와 관련, 사건이 벌어진 콘도는 77세대로 구성되었으며 거주민의 90% 이상이 한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장에 따르면 해당 콘도에서 절도 사건은 종종 있었지만, 미행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는 LA에서 미행 관련 범죄가 가장 잦은 곳으로 나타났다.

8일 본지는 LA경찰국(LAPD) 통계를 토대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용의자의 피해자 및 피해자 집 미행(Suspect follows victim/follows victim home)' 사건을 집계한 결과, 올림픽 경찰서는 247건을 기록했다. 뒤이은 사우스이스트, 센트럴(92건), 77가(80건) 경찰서 등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림픽 경찰서 미행 범죄 유형으로는 '살상 무기를 이용한 가중폭행'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 사건도 16건을 기록했다. 또 '단순폭행' 50건, '무기 휘두름' 22건, '강도 미수' 5건 등도 집계됐다.

장수아 기자

돌반지 350불까지... 한인들 "금 팔자"

(1면)

1온스당 금값 또 사상 최고치
목걸이·팔찌·14K도 현금화
돌반지·골드바 수요는 시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최근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금을 판매하려는 한인들도 부쩍 늘고 있지만 비싼 금가격에 매입 수요는 주춤하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국제 금 선물가격이 지난 8일 온스당 2327달러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물가에다 LA한인타운 경기가 하강하면서 생활이 팍팍해지자 가지고 있던 골드바, 14K 골드, 순금반지를 현금화하려는 한인들도 증가 추세다. 마이클 김 금메지 대표는 "좋지 않은 LA한인타운 경기를 반영하듯 금을 팔려는 고객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순금반지를 가져오는 경우도 꽤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값의 고공행진에 돌반지와 골드바 수요는 시들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돌반지 한돈 가격이 300달러를 넘어서고 1온스 골드바 가격도 2480달러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보석업계에 따르면 국제 금선물 가격이 온스당 2300달러를 넘어서면서 1온스 골드바 소매 가격은 개당 2480~2700달러 사이에서 결정된다.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한인들에게 금 가격의 적도인 돌반지 한 돈 가격은 30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존 김 보금사 대표는 "한 달 전만 해도 돌반지 한 돈당 270~280달러에 판매했는데 300달러를 훌쩍 넘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돌반지 선물을 하려면 반돈은 190달러 이상, 한 돈은 305~350달러 정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값이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거리가 활발했던 한인들의 골드바 구매는 오히려 줄었다.

데이비드 허 그레이트 킹스 주얼리 대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투자용으로 골드바를 사러 오는 고객들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 금값이 너무 올라서인



최근 금값의 고공행진으로 금을 팔려는 한인들이 증가 추세다. 그레이트 킹스 주얼리에서 데이비드 허 대표가 젊은층과 타인종들 사이에서 인기인 금체인 목걸이를 보여주고 있다.

김상진 기자

지 투자용 골드바 구매 고객의 발길이 뜸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젊은층과 타인종 고객들의 금팔찌와 체인 금목걸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는 게 허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금팔찌와 체인 금목걸이를 500~600달러부터 시작해 최고 1만 달러짜리도 구입하고 있다"며 "젊은 타인종의 경우, 금을 안전자산, 남에게 보여주는 과시용 귀금속으로 여겨서 인기"라고 말했다.

금값 랠리에 대해서 보석 업계는 지정학적 긴장이나 중국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과 대형 금융 기관 수요 폭증 등의 요인을 꼽고 있지만 정확한 주요 요인을 짚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금값 랠리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30%까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저명한 경제학자인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대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금 랠리가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 기대치 하락 등 전형적인 거시경제 문제를 뛰어넘었다"며 "미국 경제의 두 가지 시나리오, 즉 연착륙과 전형적인 악세장에서 모두 금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영·서재진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인기 주춤 전기차, 인센티브 공세

코로나19 거치며 예약부도 증가 식당 “노쇼 위약금 효과 확실” 고객 “불가피한 사정 참작해야”

충전 관련 불편함을 이유로 소비자들
이 외면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자
업체들이 앞다퉀 인센티브 확대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및 컨설팅업체 캐럽이 8일
발표한 ‘전기차 소유 및 구매 의향’ 보고
서에 따르면 EV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거나 고려할 수도 있다’고 답한 응
답자가 44%로 지난해 55%보다 11%포인트
하락하며 과반 이하로 떨어졌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구매를 ‘진
지하게 고려’가 9%로 전년보다 3%p 감소
했으며 ‘고려할 수도 있다’도 35%로
8%p 떨어졌다.

현재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
은 지난해 4%에서 올해 7%로 증가했지만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힌 응답자가
41%에서 48%로 높아졌다.

소득별로는 연소득 4만 달러 미만 응
답자의 61%가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
다고 밝혀 4만~9만9999달러 44%, 10만
달러 이상 41%를 크게 상회했다.

연령별 전기차를 안 사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65세 이상이 63%로 가장 높
았으며 50~64세(54%), 30~49세(41%),
18~29세(35%)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69%가 전기차 구매를 꺼려 민주당 성향
(27%)을 압도했다.

캐럽은 “지난달 1~20일 사이에 진행
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일부 자
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 성장이 기대
에 미치지 못하자 전기차 투자를 줄이기
로 결정할 것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전문플랫폼 애드먼드와 JD
파워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이유는 충전, 주행거리, 비싼 가격 등이
며 소비자 2명 중 1명(47%)이 4만 달러
이하의 저렴한 전기차를 선호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전기차에 대해 미온적 태도
를 보이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가 7500달러 할인에 60개
월 무이자 프로모션을 선보인 것을 시
작으로 각 업체가 전기차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달 EV9에 적용했던 3750

달러 할인을 이번 달 7500달러로 2배 늘
렸으며 루시드도 전 모델에 일괄적으로
5000달러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테슬라는 모델 Y 재고가 사상 최
고 수준을 나타내자 트림에 따라
3000~5000달러까지 할인해 세급 크레
딧(7500달러)까지 포함하면 RWD 트림
가격은 3만4340달러부터, 롱레인지 트
림은 3만7490달러부터 시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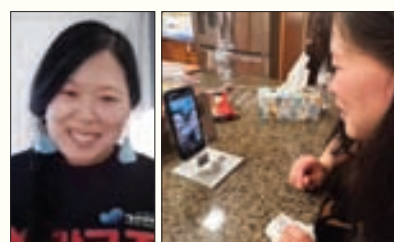
스바루도 전기SUV 솔테라 2023년형
의 3년 리스 프로그램을 다운페이 없이
기존 월 399달러에서 241달러로 40% 인
하했다.

캐럽은 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의
60%를 전기차로 대체하길 희망하고 있
으나 지난 2년간 전기차를 보유하거나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소비자는
16%에 머물고 있어 전기차 선호도가 급
변하지 않는 한 정부 목표 달성은 어려
울 것으로 전망했다.

박낙희 기자

룩킹포맘, 또 엄마 찾았다!

미네소타 출신 사만다 페이스 이달 한국 방문해 만날 예정



본지 입양인 가족찾기 프로젝트 ‘룩
킹포맘 투게더’를 통해 한국의 부모
를 찾아온 한인 입양인이 가족을 찾
아 화제다.

한국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
보장원과 미주중앙일보가 함께 했
던 노력이 두 번째 결실을 본 것이다.

지난 78년 9월 5일 전주에서 태어
나 미국으로 입양됐던 사만다 페이스
(강금주·45)는 지난달 한국의 가
족과 연락이 닿았으며 DNA 검사
결과 직계 가족으로 확인됐다고 본
지에 알려졌다.

페이스의 한국 가족은 유씨 성을
갖고 있으며 입양 당시 어머니의 성
을 따라 강씨로 이름 지어졌던 것으
로 알려졌다.

올해 초 각종 기사와 영상물을 접
한 한국 가족이 이를 아동권리보장
원에 정식 문의했으며 가족 가능성
을 높게 보고 유전자 검사를 거친 것
이다.

미네소타로 입양돼 현재는 산부
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본지
와의 인터뷰에서 “수많은 아이가 태
어나는 과정을 보며 어머니를 찾아
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태어난 나의

지난 2022년 ‘룩킹포맘 투게더’에 참여한 사
만다 페이스씨가 본지와 영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한국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페이스씨 모습. [사만다 페이스 제공]

딸에게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
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페이스에 따르면 이미 딸 여섯을
기르고 있던 한국 어머니는 78년 당
시 남편의 잦은 부재와 경제적인 어
려움으로 전주의 한 조산원에서 출
산 직후 입양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
려졌다. 하지만 이들 후마음을 바꿔
페이스를 찾으러 갔지만 이미 입양
된 이후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
움을 남겼다.

페이스 가족은 이달 안으로 한국
을 방문해 옛 가족과 정식 조우할 예
정이다.

한편 룩킹포맘을 통해 소개된 입
양인 수잔 샌드버그(테마크)가 2022
년 한국의 가족을 46년 만에 만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병원 전공의·전임의 노조결성 허용 요구

저임금·장시간 노동 개선 촉구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련하는 전
공의(resident physician)의 노조 가입
움직임이 한창이다.

8일 온라인 매체 캘매터스에 따르면
지난주 캘리포니아 최대 비영리의료
기관 카이저 퍼머넌트 소속 전공의와
전임의 수백명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
(NLRB)에 노조 결성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북가주에서 일하는

이들은 병원 측이 노조 결성을 인정하
지 않자 NLRB에 도움을 요청했다.

노조 가입 또는 결성에 나서는 전공
의 측은 전문의 수련이란 이유로 저임
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고 주장했
다. 미국에서 의사시험(USMLE)을 통
과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과 계약을
맺고 3~7년 동안 전문의 과정을 배워
야 정식 의사가 된다. 이들의 주당 근무
시간은 60~80시간으로 일반 직장인의
1.5~2배에 달한다.

반면 전공의들이 받는 연봉은 평균
8만 달러 안팎으로 시간당 20달러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한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에 따르
면 지난 2020년 이후 가주에서 노조에
가입한 전공의는 62% 급증했다. 최근
까지 가주에서는 스탠포드 헬스케어,
커크USC메디컬센터, UC계열 6개 병
원에서는 수련과정 의사 노조가 결성
됐다.

지난해 스탠포드 헬스케어 수련과정
의사 노조는 임금 21% 인상 등 눈에 띄
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

박낙희 기자

남편 살해 한인 여교수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



한편, 박씨는 2020
년 2월 자택에서 남
편 남성우(당시 41
세)씨를 의자에 묶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뒤 테이프 고정하
는 과정에서 남편 입
에 옷을 쑤셔 넣는 등
재갈을 물려 질식사
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시관은 남편 남씨의 사망 원
인이 교살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범행
후 남편을 결박했던 증거를 은닉하려
고 시도했다. 박씨는 지난 2017~2020
년까지 심슨대학교에 재직했었다.

장열 기자

남편을 결박한 뒤 살해했던 한인 여교
수가 유죄 인정에 합의했다. 아이오와
주 지역 신문 디모인레지스터는 심슨
칼리지 경제학과 조교수였던 박교수
(45·사진)씨가 지난 4일 검찰과 유죄 인
정 합의를 했다고 8일 보도했다.

박씨의 유죄 인정 공판은 오는 25일
아이오와주 델러스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다. 1급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는
유죄를 인정할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
형을 선고받게 된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결인 **마이클 장**

맞춤형 자산의 결인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라조울)
웨이리노래방

미라조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이온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항소법원, 트럼프 재판 연기 기각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내려진 항구령 해제 요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형사재판 일정을 늦추려고 시도했으나 또다시 실패했다.

9일 AP 통신 등 매체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의 신시아 쾰 판사는 항구령 해제 관련 결정 때까지 입막음 돈 의혹 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항구령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다며 항소법원에 해제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온전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보호할 공익이 있다며 트럼프 측 주장을 반박해왔다.

앞서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항구령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톰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

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는 15일 재판 일정이 시작된다.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예정된 형사사건은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이 유일하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1월 대선 이후로 공판 및 선고를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급등’ 비트코인, 6만8천달러대 하락

소비자물가 발표 앞두고

7만2천달러선을 넘나들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비트코인 1개 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84% 하락한 6만8천802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비트코인은 6만8천200달러까지 떨어지며 6만8천달러선이 위협받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전날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이른바 반감기에 대한 기대 등으로 한때 7만2천달러선까지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경신(7만3천780달러)에 대한 기대감도 키웠다.

그러나 더 이상의 동력이 작용하지 않으면서 가격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CPI 발표를 앞두고는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했다.

코인 분석업체 머티리얼 인디케

이터는 주문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코인 시장의 큰손인 이른바 ‘고래들’이 “10일 CPI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며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길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로 3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 근원 CPI는 3.7% 상승할 것으로 집계됐다. CPI 지수가 높으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줄어들 수 있어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CPI 발표를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자금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의 대규모 유출에 힘입어 2억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또 10일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GBTC의 자금 유출은 가속화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멕시코 자경단, 이번엔 출동 경찰 폭행치사

살인사건 신고받고 현장간 경찰

성난 주민들에 집단폭행 당해

극심한 치안 불안에 분노한 멕시코 주민들이 살인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했다.

9일(현지시간) 라프렌사데틀라스칼라와 엘솔데틀라스칼라 등 멕시코 일간지에 따르면 전날 밤 멕시코시티에서 동쪽으로 120km 정도 떨어진 틀라스칼라주 사카텔코에서 한 택시 기사가 강도범들에게 저항하다 숨졌다.

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이 범인 4명 중 2명을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간 뒤 마구 때렸다.

이어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틀라스칼라주 경찰관 2명이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려다가 성난 일부 주민들에게 역시 심하게 구타당한 것으로 나



멕시코 틀라스칼라 경찰

타났다. 피해를 본 경찰관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나머지 1명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신문은 보도했다.

이곳 주민 중 일부는 치안 악화에 불만을 품고 자경단을 꾸려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날 폭력 사태도 자경단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것으로 현지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엘솔데틀라스칼라는 “주민들이 사건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며 “시종일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무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게레로주 타스코에서도 8살 소녀 살해범이 성난 군중에게 맞아 숨지기도 했다.

치안 불안이라는 고질적 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멕시코에서 지역 주민들의 자경단 조직은 그리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

처음엔 자기 동네 질서 유지를 목표로 의기투합하지만, 때론 또 다른 강력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하기도 한다.

한때는 일부 지역에서 5~15세 어린이들까지 자경단원으로 모집해 사격 연습을 시켜 국내·외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화학공장 유독가스 배출 규제

“암 발병 위험 크게 줄일 것”

바이든 정부가 9일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산화에틸렌, 클로로프로펜을 비롯한 유독 가스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 조치는 미국 내 200여개 공장의 특정 장비 및 공정에 적용된다. 새 조치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산화에틸렌 등의 배출량을 80%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PA는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라 화학공장이 많아 암 발병률이 높은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강 인근의 이른바 ‘암 골목(cancer alley)’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EPA는 “이번 조치로 연간 6천200톤 이상의 유독 가스 배출을 감축, 독성 물질로 인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사람의 숫자를 크게 줄일 것”이라면서 “이 규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암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환경 정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총장 맞은 콜롬비아 검찰, 우리베 전대통령 ‘증인매수’ 기소

“거짓 진술 사주” 등 혐의

알바로 우리베(71·사진) 전 콜롬비아 대통령이 증인을 매수해 소송 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전격 기소됐다.

이 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 첫 사례다. 콜롬비아 검찰은 9일(현지시간) 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로 우리베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 피해자라고 주장하



는 사람들은 모두 공평하게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2002~2010년 집권한 우파 우리베 전 대통령의 이번 사건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좌파 정당 소속 이반 세페다(61) 상원

의원은 2012년께 우리베 전 대통령이 책임 지질 우익 민병대를 직접 창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등 좌익 반군에 맞선 우익 민병대는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마약 밀매에 관여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베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세페다 의원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수감 중인 전 민병대원을 매수해 증언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1면 ‘블랙워싱’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온라인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작품을 창작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괴롭힘은 온라인, 업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흑인 배우 캐스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3년 개봉한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 역시 주인공 에리얼 역에 미국의 흑인 가수 할리 베일리 가 캐스팅돼 일부 팬들의 반발을 샀다. 전통의 디즈니를 대표하는 ‘프린세스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 붉은 머리와 흰 피

부로 특징지어지는 ‘인어공주’ 에리얼이 흑인 캐릭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디즈니 산하 채널 프리폼(Freeform)은 “인어공주 원작자는 덴마크 사람이고 에리얼은 인어”라면서 “에리얼이 덴마크 사람이라면 흑인 덴마크인도 있기 때문에 덴마크 인어도 흑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5년 개봉 예정인 또 다른 디즈니 실사 영화 ‘백설공주’에도 라틴계 배우 레이첼 제글러가 주인공 백설공주 역 할로 캐스팅되면서 일각에서 원작 훼손 논란이 일었다.

하수영 기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백성호 공인회계사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미·일 '글로벌 안보' 분업, 중국 견제 촘촘한 포위망 짚는다

기시다방미계기 '격자형 안보' 부상
1개 거점 아닌 3~4개국 협의체 중심
오커스 3국, 일본과 군사협력 추진
'평화헌법 방위체계' 종료 빨라질 듯



미국 국빈방문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외가 8일 워싱턴DC 인근 앤드루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외교가에 선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미가 미국의 차기 안보 구상과 맞물려 일본이 미국과 분업해 세계 안보에 관여하는 위치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일본 입장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이란 '평화헌법' 체제의 종식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백악관은 이날 기시다 총리의 입국에 맞춰 백악관 벽면에 초대형 성조기와 일장기를 나란히 걸었다. 이번 방미는 일본 총리로서 9년 만에 성사된 국빈방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9일 알링턴 국립묘지 현화를 시작으로 마이크로

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 등 경제인들을 만난다. 10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국민 만찬이 예정돼 있고, 11일엔 미의회 연설과 미·일·필리핀 정상회의가 이어진다. 어어 12일에 노스캐롤라이나 도요타 자동차 탑재 배터리 공장 건설 예정지 등을 시찰한 뒤 14일 귀국한다.

이날 기시다 총리의 출국에 맞춰 미국·영국·호주의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필리2 프로젝트'에 일본이 합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커스는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리1과 해저·양자기술·인공지능(AI)·사이버·극초

음속·전자전 무기 등을 공동 개발하는 필리2로 구성돼 있다. 일본이 필리2에 합류하면 미국과 미래 첨단 무기 기술을 사실상 공유하게 된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영·호 3국 동맹 오커스가 일본이 참여하는 '조커스(JAUKUS: Japan+AUKUS)'로 변모하는 양상이다.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이날 야마다 시게오(山田重夫) 주미 일본대사와 함께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 "지금까지의 '거점 중심'(Hub and Spoke) 동맹 구조는 현실점에 적합하지 않다"며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아 '격자형(lattice-like)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언급한 '격자형 구조' 전략은 '미니래터럴리즘(minilateralism·소자주의)'을 의미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거점 중심 동맹 대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3~4개국 정도의 '소수정예'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사안별로 헤쳐모여 중국을 신속하고 촘촘히 견제하는 방식이다.

이매뉴얼 대사는 격자형 안보 전략을 구성하는 요소로 오커스와 함께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구축된 한·미·일 삼각동맹, 11일로 예정된 미·일·필리핀 3국의 정상회의를 들었다. 일본이 오커스에 합류하면 일본은 미국 주도의 모든 핵심 다자 협력체에 참여하는 유일한 동맹국이 된다.

사실상 미국과 안보를 분업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 야마다 대사는 "일본이 미국의 파트너로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방미 전 기시다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역지력과 (군사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은 미·일동맹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기 공동 개발·생산과 함께 주일미군·자위대의 지휘동체와 관련한 장기 비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장 필리핀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워싱턴=강태호 특파원

'시진핑의 남자' 자오러지 내일 방북...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

(중국 서열 3위)

중국의 상무위원급 방문은 5년만

중국 권력 서열 3위이자 '시진핑의 남자'로 불리는 자오러지(趙樂際·사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평양을 공식 방문한다. 방북의 공식적 이유는 북·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친선의 해 개막식

참석인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청으로 자오러지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인대 위원장이 당정 대표단을 인솔해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인민민주주의의 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따라 자오러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



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

자오 위원장의 방북은 지난 2019년 6월 시주석 방북 이후 첫 상무위원급 방문이라 의미가 가볍지 않다. 전문가들은 앞서 김성남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국제부장이 지난달 21~23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4명을 만나 각각 회담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성남 부장을 통해 정상

회담을 포함한 각종 외교협안과 관련된 김정은의 메시지를 받은 중국 측이 자오 위원장을 통해 후속 논의 진행에 화답할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서열 3위에 해당하는 고위급 인사가 방북한다는 것은 결국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정영교 기자

러 "우크라이나, 사흘 연속 자포리자 원전 공격"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과는 무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사흘 연속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포리자 원전을 통제하는 러시아 당국은 9일(현지시간) "자포리자 원전의 기술 훈련장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드론이 훈련장 지붕에 떨어졌으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피격 장소가 원자로의 실제 장비가 있는 특별 훈련장이었다면서 "유일하게 없는 것은 핵연료"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이 이 훈련소를 지나간 지 불과 10분 뒤

에 공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7일과 8일에도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자포리자 원전 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사흘 내리 발생한 자포리자 원전 공격과는 무관하다며 러시아 측 발표 내용을 부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정보총국(HUR)의 대변인 안드리 유소프는 현지 방송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분명하고 명백하다. 우리는 원전 시설에 어떠한 군사 행동이나 도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자포리자 원전 공격에 관한 IAEA 이사회 긴급회의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 청년 애국심 고취 전담 부처 신설 추진"

러시아가 청년층의 애국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할 수 있다고 현지 일간 베도모스티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대선에서 5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취임식을 마친 뒤 연방 정부를 재정비 하면서 '청년정책교육부'를 창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교육부를 개편하면서 교육과학부에 일부 권한이 이전되고 애국 교육 분야는 새로운 부처가 담당할 수 있다"며 "연방청년청(로스몰로도시)이 새 부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청년정책교육부에 대한 아이디어가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애국 교육을 담당하는 단일 기관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여 창설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에서 애국 교육은 국방부, 교육부, 연방청년청에서 조금씩 담당하지만 이를 조정하는 기구는 없다. 특히 크렘린궁에서 전담 부처 창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하지만 연방청년청의 기능을 강화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언제든 수정 가능하다고



러시아 청소년들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소식통은 전했다. 교육부는 일단 "새 부서 창설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의 사회경제 분야 지시 사항들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그중에는 전통적 가치에 따라 조화롭게 발전되고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교육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과제도 포함됐다.

곽태우 변호사

"K 로펌을 소개합니다!"

K 로펌의 곽태우 대표변호사는 상업 및 이민법 전문변호사입니다.

2002년부터 곽 변호사는 비즈니스 구조화에서부터, 사업체 매매, 상업부동산 매매 및 상업이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중소기업을 도왔습니다. 또한 미국에 11살때 온 한인 1.5세로 최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되어 국제거래법을 가르쳤으며, 이후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DC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각종 미국연방법에 관한 자문과 기업체들에 적용되는 연방, 주세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더불어 모든 사건에 전적인 관심과 최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약력

- 버지니아로 1980년 이민
- 뉴욕주 로체스터대학(이스트만), 동대학원
- 시카고 게렛신학대학원
- 시애틀대학 로스쿨 법학박사(JD)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음악감독(전)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
-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총영사관 자문변호사(전)
- 버지니아,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

K 로펌

K LAW FIRM PLLC
www.alexkwakesq.com

571.405.6540
alexkwakesq@gmail.com

7799 Leesburg Pike
Suite 1010 N
Falls Church, VA 22043

“DJ라면 북한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화 모색했을 것”

(김대중 전 대통령)

남북 사이에 비상사 핫라인 역할을 해온 판문점 연락사무소 전화와 동해-서해 지구 군 통신선을 지난해 4월 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정전협정 체제 유지·관리 임무를 맡은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에 24시간 전화 채널이 있다지만, 우발적인 군사 충돌 방지는 물론이고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상 표류 선박 구조 등 인도주의적 목적과 재난 대응을 위해서도 핫라인 재개가 시급하다.

하지만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 시간이 갈수록 적대적 언행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도발을 이어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모든 미사일을 고체연료화·핵무기화했다”며 미사일 체계 완성을 선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올 초에 남북한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당분간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라종일(84) 동국대 석좌교수는 김대중(DJ)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해외·북한 담당 차장과 주영대사를,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과 주일 대사를 역임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 정치학과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국제정치학 박사)을 나온 뒤 경희대에서 20여년 교수로 재직했다. 『세계와 한국전쟁』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 『물과 피』 등 단행본 저술과 강연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만나 남북 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민감한 국내의 이슈에 대한 원로의 고견을 들었다.

DJ, 핵실험에도 햇볕정책 유효성 확신

-DJ라면 ‘두 국가론’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북한의 대남 성명 자체보다 이런 선언이 나오게 된 북한 내외부의 현실을 살펴볼 것 같다. 이런 상황에 일차원적 반응을 하기보다 ‘햇볕정책’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했을 것이다. DJ라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대화·교류하는 길을 모색했을 것 같다.”
 -북한의 핵 개발로 햇볕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데.
 “한계도 있었지만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었고 초기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물론 약점도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햇볕 정책을 세습 체제 유지에만 이용하려 했고, 북한 체제와 주민에게 미치는 햇볕 정책의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려 했다. 무엇보다 햇볕 정책을 이용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DJ는 끝까지 햇볕정책의 유효성을 믿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다음 날 DJ의 급한 전화를 받고 동교동 자택에서 단 둘이 식사했다. DJ에게 ‘앞으로 햇볕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DJ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어쩌면 핵실험 때문에 더욱더 햇볕정책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DJ라면 아마 지금도 교류·협력을 계속해야 한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와 윤석열 정부의 4강 외교 전략 등을 주제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중호 기자

다고 확신할 것 같다.”

-북한의 ‘두 국가론’에 숨은 의도는.
 “분단 이후 남북 관계를 돌아보면 한쪽이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는 교류·협력을 주장하고, 그 반대 상황에서는 폐쇄적·위협적으로 나왔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과 무력 통일론도 이런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의 사정이 그만큼 나쁜 것 같다. 강대국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첨예화하는 국제 정세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은 향후 한반도를 계속 침범한 신냉전 구도로 몰고 가면서 기회가 되면 미국과 직접 협상해 남한을 고립시키고 북한 내부 이완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압도적인 핵 무력 우위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어떤 경우에도 유지 필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정은의 강경한 도발 언사와 남한에 대한 비난을 살펴보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쟁 도발론’ 이라기보다는 ‘전쟁 불사론’에 더 가깝다. 평화를 지키는 군사적 역력은 필수다. 정부는 김정은의 일방적 선언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대결·충돌로 악화하지 않도록 남북 관계 관리에 더 유념하길 권한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로 손을 잡은 모습. [연합뉴스]

-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발표 30주년을 맞아 통일 부가 새로운 통일 구상을 준비 중이다.

“지금 상황에서 획기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앞서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늘 아래 한 울타리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원망(願望)을 강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남북이 다른 민족이고 영구 분단된 두 국가라고 하면 주변 강대국들만 편해지고 좋아할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돼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면.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쉽게 동의하거나 우리가 먼저 철수를 요구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있으면 안 된다. DJ는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남북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도자는 핵 무장 선택지도 유념해야 한다. 물론 핵 무장에 앞서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군사적으로 대북 억지력을 조용히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과 러시아와는 어떤 외교가 필요한가.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니 1998년에 발표한 역사적 인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어 21세기에 한·일 양국이 함께 수행해야 할 세계적 비전과 실천 청사진을 담은 ‘새로운 공동 문서’가 나오길 기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식의 경직된 냉전 구도가 조성되는 것은 유감스럽다. 적절한 선에서 명분을 지키되 실리를 추구하고 균형 외교와 선린 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는 상대 인정하는 데서 시작

라종일 석좌교수의 선친 백봉(白峰) 라용균(1895~1984)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원을 지낸 독립운동가다. 해방 후엔 제헌국회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그의 호를 따서 제정한

‘백봉 신사상’을 1999년부터 매년 시상한다. 라 석좌교수는 여야 정치권에도 광복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DJ를 존경한다”는 윤 대통령에게 DJ라면 어떤 정치를 조언할까.

“민심을 잘 살펴 너무 앞서거나 뒤떨어지지 말고 국민보다 반걸음만 앞서는 정치를 하라고 권할 것 같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영역이니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좀 더 많은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 DJ라면 외교 무대에서 절제된 표현을 권할 거로 본다.”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발언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어떤 경우라도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찬성하기는 어렵지만, 한반도에 인접한 강대국에 도전하는 듯한 직설적 발언이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외교 정책은 선택의 여지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기본인데, 선택의 폭이 좁아질수록 그만큼 상황이 나빠진다. 주변 강대국을 상대하는 우리 외교의 원칙은 선린·평화, 그리고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균형 외교여야 한다.”

-“DJ 정신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DJ라면 뭐라고 충고할까.

“DJ라면 여야가 국회 안에서 의회 정치의 기본 정신에 따라 자신과 노선이 다르더라도 협의에 따른 정치를 하도록 충고할 것이다. 자신의 노선이 나 입지와 다르다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정부를 끌어내리려 하거나 의회 정치의 기본을 소홀히 하고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할 것 같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큰 실수

-“중국어 세세(謝辭)고맙다)만 하면 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인데.

“야당 지도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렵다. 이웃 국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저 고맙다고만 하면 된다는 것은 희극인지 비극인지 모를 정도다. 정부의 외교 실책을 지적하더라도 외교 문제를 선거 같은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청 이관을 어떻게 본다.

“대공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 밖에 없다. 대공수사는 더 절실해졌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앤 것은 큰 실수다. 대공 수사에 큰 공백이 우려된다. 경찰은 그동안 인력 양성 등 준비가 안 돼 있고 수사 노하우와 자료 처리 능력이 없다. 총선 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백봉 선생이라면 요즘 여의도 정치를 어떻게 볼까.

“국회의원은 지방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선친의 지론이었다. 이번 총선 정국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친이라면 ‘멋있게 지는 것이 지지분하게 이기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장세진 논설위원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종언·이영희

703-259-5617, 410-241-2520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자이언트 부동산

- 부동산 전문지식
- 협상능력
-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민주주의에서 상대와 손잡지 않고 세상 바꿀 방법은 없어”

역대급 혐오의 선거다. 전·현직 대통령을 혐오하고, 정치인을 혐오하고, 역사적 인물들을 혐오하고, 지역을 혐오하고, 여성을 혐오하고, 혐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혐오한다. 혐오하니까 심판하겠다고 한다.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고 야당을 심판하겠다고 한다. 혐오의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은 보통 둘로 나뉜다. 그들의 행태에 염증을 내고 정치 무관심으로 돌아서 버리는 것이 하나고, 그들의 혐오에 동참해 분풀이하는 것이 다른 하나다.

역대 가장 낮은 총선 투표율은 2008년 18대 총선의 46.1%였다. 유권자 두 명 중 한 명도 투표하지 않았으니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그 이후 투표율은 계속 올라서 2012년 19대 총선 54.2%, 2016년 20대 총선 58.0%, 2020년 21대 총선 66.2%를 기록했고, 이번에는 70% 벽을 넘길 수 있을지가 관심사가 됐다. 투표율이 높아진 데에는 이 기간 동안 사전투표 제도가 정착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상은 투표율은 혐오의 정치와 동반해 상승했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두 가지 반응 중 두 번째 것이 대체가 돼 가고 있다. 이제 유권자 중 상당수는 적이라고 규정할 정치집단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혹은 그들이 다수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한다. 서로를 심판하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우리 편의 흥결이나 정책의 차이 같은 건 나중의 문제다.

역대 최고치라는 31.28%의 사전투

심판은 결코 시대정신 될 수 없어 적과 기꺼이 타협하는 게 시대정신

선거 이후 갈리고 찢어진 난국서 각 당, 정치복원 위해 최선 노력

표율은 그래서 안도와 우려를 동시에 자아낸다. 한편으로 민주주의란 원래 정치적 균열을 만들고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하는 정파 중 어느 쪽의 의견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는지 선거를 통해 확인한다. 시민들이 투표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체념의 사회보다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너도나도 참여하는 시끌벅적 활기찬 사회가 낫다. 그러나 이 높은 사전투표율의 상당 부분이 혐오의 정치에 동승한 심판의 투표일지 모른다는 한쪽의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것이 정권 심판이든, 야당 심판이든 말이다. 심판은 결코 시대정신이 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의 본질에 무엇이 있는지를 간파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강구하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미래상이 무엇인지를 설계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적과 타협해야 한다면 기꺼이 타협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그래서 아직 투표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투표하자. 투표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의 대가는 자기보다 못한 자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경고는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이다. 특히



한국처럼 인구·안보·경제적 격변의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양당 지지층이 집결한 상황에서 가장 많은 부동층으로 막판 변수가 된 젊은 세대의 경우를 보자. 이들 젊은 부동층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 무관심으로 돌아서버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든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그들에게 긍정적·부정적 유산을 동시에 남긴 기

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은 그들의 미래가 우리의 선택에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인구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고, 수많은 전문가가 경고하고 대책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법을 만들고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지 못하다가 지금의 상황을 맞았다. 그사이에 정

권 교체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본인들이 겪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급기야 예상했던 대로 1~2년 전부터 급속히 패달을 밟고 있는 고령화는 향후 젊은 세대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에서 만들어질 법들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기성세대는 젊은이의 미래를 규정할 법을 만들어 놓고 사라질 것이다. 스스로가 결정한 미래이기를 바라는 이유다. 지금과 같은 혐오의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혐오하는 사람들의 결정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갈리고 찢어진 이 난국에서 각당은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날 정치지도자라 부르고 기리는 인물들은 어떤 난세에도 정치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열어두었던 사람들이다. 선거에 출마하며 그들의 묘소에 가서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복원의 신념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적과 손잡는 것이고, 승리한 순간 겸손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상대와 손잡지 않고 세상을 바꿀 방법은 없다. 갈라져서 적대하던 시민들도 혐오가 퇴색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곰곰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일상적 행동의 준칙(mores)이다. 다수결 다음 단계의 진짜 민주주의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도달해야 한다. 장덕진 교수가 본 4·10 서울대학교 사회학

손등 말고 푸바오에 MZ 투표인증 달라졌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 남모(27)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사전선거 일인 지난 6일, 캐릭터 ‘망그리진곰(망곰이)’이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를 이용해 선거에 무관심한 남자친구를 투표소로 불러냈다. 남씨의 인증샷을 본 남자친구는 “귀여운 망곰이가 ‘어떻게 투표를 안 할 수 있냐’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망곰이 왼쪽 뺨에 기표 도장이 찍힌 투표 인증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 남씨는 “진지한 투표 독려 방식은 부담스럽다”며 “재치있게 투표를 독려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 인증샷의 대체는 MZ세대의 캐릭터 투표 인증 용지다. 캐릭터 등이 그려진 인증 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은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공

유하는 방식이다. 기표 도장이 찍힌 손등·손바닥 사진을 SNS에 공유하던 과거 방식과 사뭇 다르다. 공직선거법상 개인이 미리 준비해 가져간 투표인증 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 용지가 투표 인증 용지의 주류다.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5~6일, SNS에는 기표 도장이 찍힌 ‘농담곰’ ‘깨국이’ 등 다양한 인기 캐릭터 투표 인증 용지 사진이 넘쳐났다. 인기 캐릭터 외에도 인기만화 주인공 공 캐릭터나 연예인 포토 카드에 기표 도장을 찍은 인증샷도 유행이다.

프로야구팬을 위한 맞춤 투표 인증 용지도 인기다. 인증 용지에는 프로야구단 캐릭터와 함께 ‘LG 투승’ ‘한화 투승’이라고 적혀 있다. ‘투’자 위에 기

표 도장을 찍으면 ‘우’가 돼 ‘우승’이라는 글자가 완성된다. 한화 팬 오모(25)씨는 “팀을 응원하면서 투표도 독려하는 일석이조 쉐럴지”라며 “주변 사람들이 어디서 구했느냐고 물을 만큼 투표 장려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업체에서 내놓은 기존 제품 대신, 직접 캐릭터 투표 인증 용지를 만들기도 한다. 총선일(10일)을 하루 앞둔 9일, 개인이 만든 창작 캐릭터 또는 이미지 합성 투표 인증 용지 도안이 다수 SNS에 올라왔다. 푸바오 투표 인증 용지를 디자인한 송모(34)씨는 “특정 정당을 의도하지 않아도 옷 색깔이나 손가락 표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없이 투표를 독려하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는 “캐릭터 투표 인증 용지는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20~30대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며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투표 독려 방식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규·김민정 기자

캐릭터 등을 넣은 투표 인증 용지가 대체. 푸바오 열린 공간에 기표 도장을 찍는 식이다. 아래 사진은 기표 도장을 찍은 인증 용지. [사진 독자, X(옛 트위터)]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정승욱
연방세무사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스프링 필드 타운홈



\$670,000

방4, 화3.5, 2 Assigned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 집 지하 워크아웃

페어팩스 싱글홈



\$785,000

방5, 화3, Split Level 수리 많이 함 지하 Full Bath, Walk Out

페어팩스 타운홈



\$800,000

방4, 화4.5, 차고2, 2007년산 굿로케이션, 2350 Sf 루프탑덱, 커다란 부엌

리스버그 싱글홈



COMING SOON

방5, 화5, 차고2 4835 Sf 2019년산

페어팩스 타운홈



COMING SOON

방3, 화3.5, 2 Assigned 편리한 교통 전체 리모델링함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크리스천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Since
1996

의료비 나눔 사업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CA와 NJ 지역의 CMM 회원은
벌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vel 내용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unit	\$ 195	\$ 150	\$ 90	\$ 45
2units	\$ 365	\$ 290	\$ 180	\$ 90
3units	\$ 485	\$ 430	\$ 270	\$ 135
의료비 지원범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예방검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입원, 수술	입원, 수술
본인 부담금	\$500 /년	\$500 /건	\$1,000 /건	\$5,000 /건

* 모든 Level에서 질병당 \$150,000까지 지원합니다.

11/2023 기준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773-777-8889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CMM기독교의료상조회는 로고스선교회 산하 기관으로 501(c)(3) 비영리 의료비 나눔 사업 기관이며,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유사 단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경영입니다. 사회적관계망(SNS)에 드러난 CEO의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는 기업에 대한 평판, 브랜드 가치, 때로는 실적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 대표나 임원의 SNS 활동이 회사 주가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SNS는 시간 낭비”라는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의 일침이 기업 CEO들 에겐 예외일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적합하면 약이 될 수 있고, 타이밍이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자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지 짚어봤습니다.
김경미·이수정 기자

소셜 미디어에서 글로벌 기업 CEO의 영향력은 팝스타나 할리우드 배우 못지 않다. 팀 쿡 애플 CEO를 비롯해 사티아 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 순다 피차이(구글), 마크 저커버그(메타) 등 미국 메그니피센트7 같은 기술 대기업 수장들은 자신의 SNS 영향력을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혹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알리는 데 쓴다. 이들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소비자들은 기업의 새 소식을 빠르게 접할 뿐만 아니라, CEO의 OOTD(Outfit of the Day, 오늘의 옷차림)나 점심 메뉴, 취미 같은 정보에 꾸준히 노출되다 보면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호감을 갖기 쉽다.

많은 CEO가 이 기회를 모르지 않는다. 미국의 마케팅업체 인플루엔셜이그제큐티브에 따르면 2022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선정 500대 기업 CEO 중 70%는 하나 이상의 SNS 계정을 갖고 있다. SNS를 쓰는 CEO 352명 중 97%가 링크드인을 쓰고 있었고 X(31%), 인스타그램(14%)이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한국은 어떨까. 중앙일보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 100곳을 조사한 결과 2024년 3월 말 기준 이들 기업의 총수나 창업자, CEO가 SNS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24곳 정도였다. 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최근 인스타 게시물을 정리한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경제계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부장(사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수는 계정이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가 많았다.

한국 기업 CEO들이 SNS에 소극적인 이유는 ‘CEO 리스크’(또는 오너 리스크)를 우려한 측면도 있다. 남들이 안 하는 건 굳이 하지 말자는 조심스럽고 다소 방어적인 홍보 전략이다. 창업자 후손 등 오너 일가가 아닌 전문경영인이라면, SNS로 대중의 시선을 끄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기관리 컨설팅업체 스트래티지 샐러드의 정용민 대표는 “전문경영인이 SNS에 시간을 쏟는다면 일에 전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뿐더러 정치나 이직에 뜻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NS는 회장님들 ‘자소서’ ... 모범 답안은 팀 쿡이다

(자랑+소통 글)



잘 쓰면 이득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잘 쓰나

CEO의 성향에 따라 온라인 활동 무대는 제각각이다. 진지하고 공적인 내용, 경영 철학과 목표 등에 대한 담론을 즐기는 경우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이 주로 쓰인다. 반면에 취미나 일상 등 사적인 결들인 가벼운 글은 인스타그램(인스타)에 주로 올린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경영대학원의 클라우디아 말호트라 교수는 기업인의 SNS를 크게 넷으로 분류했다.

말호트라 교수에 따르면 X를 쓰는 기업인 중 팔로워가 많고 게시물이 많이 확산(리트윗)되는 경우는 자사 제품 정보와 신제품 출시 소식, 업계 동향과 분석 등 사업 관련 정보를 올리는 ‘비즈니스 전문가형’이 많다. 그는 “사회문제에 대한 CEO의 통찰력은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 수는 있지만 자신의 사업 분야에 대한 글만큼 빛나지는 않는다”며 팀 쿡 애플 CEO와 제프리 이멜트 전 GE CEO의 X 활용을 비즈니스 전문가형 SNS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 몇 가지 사례를 더 분석해 보자.

올 초 마이크로소프트(MS)에 세계 시총 1위를 내준 애플. 지난 2월 팀 쿡 CEO는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생일을 맞아 잡스의 사진을 자신의 X에 올렸다. “이 우주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작은 흔적(변화)이라도 남기기 위해서야”라는 그의 말도 함께 담았다.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주주들의 비난에 ‘혁신의 아이콘’ 잡스에 대한 추억을 끄집어낸 것. 곤두박질하

- 1 미국 CEO 70% SNS 활동
한국은 보수적, 24% 불과
- 2 주주 의혹 풀어주는 팀 쿡
‘럭비공’ 머스크 반면교사
- 3 메시지 일관적이면 ‘평타’
직원 SNS ‘선편’ 은 금물

포춘 500대 기업 CEO 10명 중 7명은 SNS 중 하나 이상의 SNS 계정 운영(352명)
단위: %, 복수응답 ※2022년 포춘 선정 500대 기업 기준



자료: 인플루엔셜이그제큐티브

는 주가와 8년 만의 신작 ‘비전 프로’에 대한 흥풍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필살기였다. 중국 매출 부진을 의식한 팀 쿡은 지난달 21일 웨이보(중국 SNS)에 상하이 애플스토어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수장의 목소리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링크드인이다. 경제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계정에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리더십이 우리에

게 오고 있다”며 미국 출장 소회를 밝혔다. 삼성이 범용인공지능(AI) 전용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도 지난달 19일 그의 SNS를 통해 소개됐다. 우주 관련 책을 읽고 나서도 “삼성 반도체는 생성 AI 앱의 속도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제품 홍보를 잊지 않았다.

기업의 미래 가치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은 CEO의 경영 계획과 신사업 전략에 관심이 많다. 주주총회나 실적 발표에 나오는 정제된 정보들만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기업의 주주는 소액주주들에게 친절하지도 않다 보니 SNS를 통해 ‘바로 지금’ CEO의 머릿속을 읽고 기업의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면도 있다.

독일 국제경영대학원의 엔스 카이페레 교수는 2021년 11월 이후 6개월간 나스닥100 상위 5개 기업 CEO의 SNS 활동과 주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팀 쿡(애플), 일론 머스크(테슬라), 순다 피차이(구글), 사티아 나델라(MS), 제프 베이조스(아마존)의 X 게시물에 대상이었다. 그 결과 애플의 주가는 팀 쿡의 SNS와 밀접하게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머스크의 게시물은 그 자체만으로는 과급력이 상당했지만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유재웅 위키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는 “CEO의 SNS 활동은 본인의 의도가 어떻게 온전히 사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자신의 판단

에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CEO가 운영하는 SNS의 팔로워 수가 늘어날수록 이를 바라보는 임직원과 주주들 마음은 복잡해진다. SNS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회장님(사장님)의 SNS’, 이것만 기억하면 평타는 친다고 한다. 바귀 말하면, 아래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면서 SNS를 즐기는 CEO들은 주주나 직원, 소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사랑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SNS에 자극적인 게시물이 범람할수록 믿을 만한 게시물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 과장된 내용, 잘못된 정보는 기업의 평판을 깎아 먹는 지름길이다. SNS 활동도 소비자와의 약속이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일관된 관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화제의 글에 무조건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CEO의 SNS는 회사의 공식 계정이 아니다. 인간적인 매력을 담아 자신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CEO의 언어를 공적 언어로 받아들인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정치적 견해나 대중과의 괴리감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행태는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 고객뿐 아니라 직원들도 SNS를 한다. 직원의 SNS에는 절대 먼저 친구 신청을 하거나 팔로우하지 말자.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고 싶은 직원들의 퇴사 충동을 자극하지도 모른다.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Ex: 현 60세 남성 - Cash Indemnity 방식 (매월 은행 계좌로 정기간호 비용이 입금)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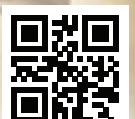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병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이재명 “권력” 823회, 한동훈 “범죄” 781회…네거티브 치중

양당 대표 유세전 메시지 분석

이, 정권 396회·대통령 211회 거론한, 조국 540회·김준혁 242회 언급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 키워드 적어

4·10 총선 기간 여야가 네거티브 선거에 몰입했다는 점은 숫자로도 확인됐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지난 8일 12일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식 유세 발언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서다. 한 위원장은 120차례 유세에서 37만3343자를, 이 대표는 59차례 유세에서 28만4254자의 말 폭탄을 쏟아냈다. 두 사람은 ‘국민’(한동훈 652회, 이재명 1486회)과 ‘시민’(한동훈 402회, 이재명 86회)을 부르짖으며 호소한 건 ‘아·조 심판’(한 위원장)이거나 ‘정권 심판’(이 대표)이었다. 두 사람의 말에선 저출산·고령화 등 생활과 밀접한 정책 이슈와 연관된 단어를 찾기 어려웠다. 한 위원장이 ‘5세 이상 무상보육’ 공약 발표 때 ‘출산’ ‘육아’를 34차례 쓴 게 전부다. 첫 유세 때부터 ‘범죄 연대 세력, 아·조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한 한 위원장은 ‘범죄’(781회), ‘조국’(540회), ‘이재명’(498회)을 강조했다. ‘조국’의 빈



도가 ‘이재명’보다 높았다.

민주당 후보의 도덕성도 자주 도마 위에 올랐다. ‘이대생 성 상납’ 등 막말로 논란을 부른 ‘김준혁’(경기 수원정)이 242회, 사기 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경기 안산갑)이 193회 등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선 뒤엔 ‘문재인’을 103차례 거론했다.

공식 선거 기간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야권 200석’을 부각했다. ‘200석’은 122회, ‘개헌’은 50회 사용했다. ‘저사

람들(야당)이 200석을 얘기한다. 200석이 만들 무시무시한 신세계를 생각해 달라’(9일, 강동 유세)는 식이다. 한 위원장은 ‘투표’도 724차례 말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권력’(823회), ‘정권’(396회), ‘주권’(301회), ‘심판’(106회) 등을 정권심판론을 세우는 키워드로 활용했다. 이 대표는 9일에도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 달라”(대장동 재판 출석 전 기자회견)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259회), ‘대통령’(211회)도 200차례 넘게 호명했다. 반면에 ‘한동훈’을 부른 적은 없었다. 선거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 배제다. 그의 말에서 한 위원장의 단골 키워드인 ‘범죄’ 역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경제도 정권심판론의 주요 소재였다. ‘경제’ 427번, ‘물가’ 55번, ‘대파’ 40번 등이다. 반면에 ‘김건희’란 단어는 없었다. 지난 8일 증권사가 밀집한 서울

여의도 유세 중 “대통령 부인이 주가지수로 수습역원을 벌었다면 단속해야 하는데, 특정인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지수 조작 의혹을 건드린 게 전부다.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도 논외였다. 사전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 논란이 일자 지난 5일 대전 유세 중 “대파가 안 되면 ‘디올백’ 들고 가는 것도 안 될지 모른다”고 비꼰 게 다였다.

이창훈 기자

상대방 비방, 욕설·저주까지…아이 보기 민망한 ‘19금 총선’

현장에서

공약·정책대결 실종, 막말만 판쳐 온라인선 “이러니 개콘 망해” 댓글

“그만 좀 싸우라고 해요.”

4·10 총선 취재를 위해 현장을 찾을 때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말이였다. 전북 전주에서 만난 60대 여성은 “아니 봐요, 어떻게 해서 국민을 살릴까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헐뜯고 씹박질만 하고 앉았어”라고 혀를 찼다. ‘이번엔 정책 대결에 초점을 맞춰야지’ 마음 먹고 나선 취재길이었기에 짜늘한 주민 반응은 매번 참 씁쓸했다.

그런데 이런 차가운 반응을 누가 만들었을까. 유세차 앞에서 노트북을 펴고 받아치는 게 일상이었던 기자는 주변에 흑시 어린아이가 있는 게 아닐까 걱정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총선이 역대급 혐오 선거를 넘어 ‘19금’ 수준으로 전락하면서 유세장에서도 19금 수위의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발단은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였다. 그는 과거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연산군 스와핑’ 등 민망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제 입이 더러워지겠지만”이라는 말을 붙여가며 마이크를 잡고 김 후보의 발언을 읊었다.

그런 한 위원장도 “빠” 소리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유세)이라고 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7일 충북 청주 유세 댄 김 후보를 겨냥해 “성희롱하는 새…”까지 말했다가 급히 말을 주위담기도 했다.

물론 이 대표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2일 서울 동작구 유세 중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를 향해 “나베(나경원+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라고 표현했다.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최

근 “냄비(일본말로 나베)는 끓여야 제맛”이라는 홍보물이 퍼져 ‘성 비하’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인용한 것이다. 냄비가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은어로 쓰이는 걸 이 대표는 과연 몰랐을까.

이 대표는 또 “4·3 학살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국민의힘”(3일 제주 4·3 추념식)이라고도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일베(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출신”(3일 강원 춘천 유세)이라고 맞받았다. 거대 양당의 대표가 같은 날 ‘막말 배틀’을 벌인 셈이다.

저주도 난무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경남 양산갑 후보는 7일 유세 중 “문재인 죽여야 돼”라고 극언을 해 논란이 됐다. 옥중 출마한 송영길 전 의원이 이끄는 소나무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형’과 같은 황당한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비호는 대파,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상징하는 법카 등의 투표소 반입을 놓고 여야가 싸우기도 했다. “이러니 개콘서트가 망



대구향교에 설치된 투표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대구시 중구 남산동 대구향교 소강당에서 유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투표소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오늘(10일)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뉴스1]

했다”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정치가 희화화되는 순간이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하는 사이 유세 현장은 점점 일반 유권자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였다. 노트북 자판을 열심히 두드리다 고개를 들어보면 파란색과 빨간색 ‘갈매춤’ 옷차림의 강성 지지자와 카메라 장비를 손에 든 정

치 유튜버만 유세차 앞에 모여든 모양새였다. 선거 막바지가 되자 어수선한 유세 일정이 끝나고 철쭉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면 습관적으로 고개를 돌려봤다. ‘어린아이들이 유세장 근처에 있었던 건 아니겠지’ 하고 말이다. 시작도 안 한 22대 국회, 벌써부터 걱정이다. 장서윤 기자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2023 Return

A T X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4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꼭, 약삭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페어팩스 콘도
방2 + 와2
\$41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 + 와3, 차고2
\$800,000

센터빌 타운홈
방3 + 와3.5
1,496 sqft, 1993년
\$535,000

센터빌 타운홈
방3 + 와3
1,360sqft, 1985년
\$500,000

애플러스 부동산 / 탐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비지니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베일랜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잘못된 정권에 옐로카드를 이재명, 용산서 마지막 유세

대장동 재판 출석하며 ‘윤정부 심판’ 호소 “누가 투표 많이 하느냐에 50~60곳 결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내일 우리가 받아들 투표 용지는 ‘옐로카드’라며 “꼭 투표해서 국민을 배신한 정치 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장동 의혹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안다”면서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총세 차례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해결하라는 민생 과제는 제쳐놓은 채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총선을 겨냥해 사기성 정책을 남발한다. 분명한 불법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또 “입찰막, 칼날막”도 모자라 ‘파탈막’까지 일삼은 탓에 피로 일궈낸 모범적 민주 국가가 2년 만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능멸하는 정권 탓에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 과반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고쳐서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라로 떨어질 것”이라며 “주권자들이 나서 이 정권을 멈춰세워야 한다.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판 휴정 시간에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온라인 유세를 펼쳤다. “전국에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느 쪽이 투표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결판이 나는 곳이 무려 50~60곳에 이른다”며 “전국 어디에 계시든, 국내 아닌 해외에 계시더라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만나서 실득해 주셔야 한다. 정말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용산역 앞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펼쳤다. 유세차에 오른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의 출발도 용산이었고, 마무리도 용산에서 한다.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권에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자들의 잘못된 권력 행사를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 용서하면 우리는 몇백 배, 몇천 배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다”며 “그 눈물과 사과의 유효기간이 하루 남았다. 하루밖에 안 남은 가짜 사과에 속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말겨진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해친다면 권력의 일부라도 회수해야 한다. 최소한 옐로카드로 정신이 번쩍 들게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지원·이기람 기자

“딱 한표 부족, 투표 나서달라” 한동훈, 서울만 15곳 총력전

도봉~광진 훑고 청계광장서 마지막 유세 “본투표하는 12시간, 역사가 바뀌는 시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도봉과 동대문, 성동, 광진 등에 이어 마지막 청계광장 유세까지 15곳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서울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

이날 생일을 맞은 한 위원장은 “딱 한 표가 부족하다. 그 한 표 때문에 30년, 40년 뒤에 후회할 건가”라며 본투표를 독려했다. 본 투표가 시작되는 10일 오전 6시부터 12시간을 “역사가 바뀌는 시간”이라며 “나라가 망할지, 발전할지 결정하는 이 운명적 순간에 경기장 밖, 사이드라인 밖에 있지 마시고 경기장으로 들어오셔서 나라를 지키고, 역사를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또 “독립운동, IMF 외환위기 사태 등 정말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며 “어려울 때 시민이 나서 주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나서 달라”고 말했다.

야권을 향한 메시지는 더 강해졌다. 이날 대장동 의혹 재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국민에게 자기를 살려 달라는 영웅의 눈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 짓고 법원 가서 재판받는 사람이 후보자 이름을 불러가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우리도 눈물이 난다. 피눈물이 난다. 이 대표처럼 죄를 짓고 자기 죄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싶어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집전 지역 주요 선거구와 민주당 후보 이름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또 “조국,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른쪽 둘째)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은 200석을 만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허락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추행이나 사기 대출도 자기 편이만 하면 다 괜찮다고 할 것”이라며 “이를 허락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어렵게 만든 성취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걸 두고 보실 건가”라고 말했다. 잇따른 막말 논란을 빚은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와 사기대출 의혹에 휘말린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동시에 겨냥한 발언이었다.

한 위원장은 청계광장 최종 총력 유세에선 “민주당이 삼폐인을 터뜨리면서 조롱하듯 말하는 200석이 만들 혼돈과 퇴행을 생각해 달라”며 “탄핵과 특검 돌림노래는 기본이고, 자유를 빼고 임금을 깎고 세세(謝辭, 고맙다) 외교로 한·미 공조를 무너뜨려 친중 일변으로 돌리고 죽창 외교로 한·일 관계를 다시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0일간 정부·여당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면 바로 바꾸고 반응하고 바로잡았다. 민심만 보고 앞으로 더 그렇게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민구 기자

조국당 “목표 의석은 10석+α”... 개혁신당 “이준석 골든크로스”

제3시대 정당들 막판 총력전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제3시대 정당도 막판 유권자 마음잡기에 주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면 김건희씨가 법정에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00석을 갖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막아 “거부권을 오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대구→광주→서울을 순회했다. 유세 때마다 “앵가 이 해라 느거들”(부산), “똑디하라”(대

구) 같은 사투리를 쓰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목표 의석수는 이날도 “10석+α”라고 했다. “2월 13일 창당 선언 후 한 번도 목표 의석을 바꾼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의 태도와 결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간 약속한 걸 진짜 하려면 의석수가 조금 더 필요한 건 사실이다. 비례대표는 압도적으로 9번을 몰아 달라”고 했다. 마지막 유세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 달 28일 출정식을 열었던 곳이다. 조 대표는 “모든 시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박근혜 정권을 조기 종식시킨 장소”라며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 조기 종식의 형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아는 것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왼쪽 사진부터)은 지지를 호소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연합뉴스]

은 2년이 지긋지긋했다는 것, 3년은 너무 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읍에 출마한 이준석 대표 지원에 전력을 쏟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지지율이 딱 붙었다”며 “예상으로는 오늘 골든크로스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자체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표가 공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질렀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올라온 글을 캡처한 사진을 공유하며 “공영은 후보가 동탄의 주민들을 댓글부대로 표현하니 이재명 후보 팬클럽은 정치 이야기가 금지된 동탄맘 카페에 이준석 비방 자료를 뿌려 달라고 한다”고 적었다. 전날 공 후보가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화성읍에 올인해 전국 조직이 다 화성을로 옮겼다”며 “온라인상에 댓글 부대부터 시작해서”라고 언급한 걸 겨냥한 것이다.

정용환·강보현·박건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메디케이드 /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정선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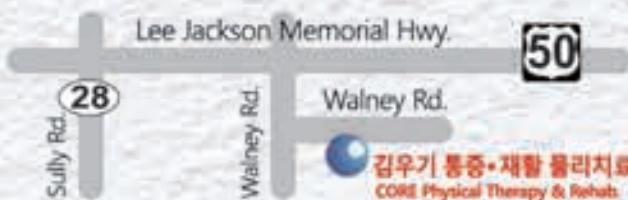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우리말 바꾸기

두 모습의 '밖에'

모습은 같는데 쓰임이 다른 말들이 있다. 띄어쓰기에 혼란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앞말과 띄기도 하고 앞말에 붙이기도 하는 '밖에'가 대표적이다.

"아침마다 대문 밖에 놓여 있던 병우유의 추억" "주식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던 종목"에선 '밖에'를 앞말과 띄어야 한다. 이때 '밖'의 품사는 명사다. 안의 반대인 바깥, 일정한 한도나 어떤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쪽을 의미한다. 여기에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가 결합한 형태다. 조사는 체언 뒤에 붙고 명사는 앞말과 띄어야 하므로 '대문밖에' '관심밖에'처럼 붙일 수 없다. 명사 '밖'은 '에' 말고도 '이, 은, 의, 을, 으로, 에서' 등 여러 조사와 어울린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향수" "지갑 속에 1달러짜리 2장밖에 없다"에선 '밖에'를 앞말에 붙여야 한다. 이때의 '밖에'는 보조사다.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엔, 거기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으로 사용된다. '밖에' 자체가 조사이므로 '하나 밖에' '2장 밖에'처럼 띄어 쓸 수 없다.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도 의존명사 '수' 뒤의 '밖에'가 조사이므로 붙여야 한다.

'밖에'의 쓰임새를 어떻게 구분할까? 먼저 의미를 따져 봐야 한다. '밖에'가 명사 뒤에서 '오로지, 뿐, 그것 말고는'의 뜻으로 사용되면 조사다.

글로벌 음료기업 코카콜라가 지난 2월20일 한정판 제품으로 '코카콜라 제로 한류(K-wave)'를 출시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등 36개국에서 판매했다. 제품 패키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영문 'Coca-Cola' 로고와 함께 한글로 '코카콜라'를 선명하게 새겨 넣어 디자인했다. 캔 하단에 제품의 맛을 한글로 '상큼한 죄애 맛'이라고도 표기했다.

특정 언어를 상품 디자인으로 채택한 것은 132년 코카콜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류를 내세운 이 특별한 콜라는 K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류를 전면으로 내세워 코카콜라는 젊고 활기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오아나 블라드 코카콜라 글로벌 전략 시니어 디렉터는 "음식, 패션, 드라마, 음악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문화적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한류 맛 콜라는 JYP엔터테인먼트와 협업으로 홍보영상도 만들었다.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이자 아티스트인 박진영과 아이돌그룹 스트레이 키즈, ITZY(있지), NMIXX(엔믹스)와 함께 만든 음원 '라이크 매직(Like Magic)'과 뮤직 비디오를 공개했다. 한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 한국 아티스트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

한류 맛 코카콜라의 함의



이무영 뉴미디어국장

다. 2021년에는 맥도날드가 BTS와 손잡고 약 50개국에 'BTS 세트'를 출시해 많은 매출을 올렸다.

K팝은 2012년 센세이션을 일으킨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시작해서, BTS와 블랙핑크 등이 등장하며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됐다. 겨울연가와 대장금이 불씨를 놓은 K드라마는 오스카상에 빛나는 '기생충'과 넷플릭스의 세계적 히트작 '오징어게임' 등으로 이어졌고 한국은 문화 콘텐츠 제작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역설적이게도 해외여행을 하지 못한 팬데믹 기간 유튜브와 넷플릭스 플랫폼을 타고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 안방으로 찾아가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됐다.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문화에 호감이 생긴 한류 팬들은 한국음식과 한글을 알고 싶어 하는 열망으로 이어졌다. 코카콜라가 '한류를 제품명으로 채택하고 제품명을 한글 디자인으로 시각화한 것은 한류 사랑에 빠진 소비자를 겨냥한 홍보전략인 것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집계한 한류 팬은 2012년

12월 926만명에서 2023년 12월 2억2500만명으로 10년 만에 24배 성장했다. 한류 팬클럽은 2012년 757개에서 2023년 1684개로 2.2배 늘었다. 한류 동호회 가입자를 집계한 숫자이니 실제 한류 팬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인기가 급상승하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3월21일 "한국의 창조 산업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 산하 상설기관이다. 보고서는 "흔히 한류라고 알려진 한국의 문화 수출품들은 지금 전세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며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국에서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여정에서 많은 개도국이 배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창조경제부처 책임자 마리아 헨더슨은 "문화 자산과 창조 산업을 성장과 발전의 엔진으로 전환하려는 국가들에 고무적인 모델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다.

한류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한국문화와 한글을 아는 것은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됐다. 미주 한인사회는 이 자산을 어느 커뮤니티보다도 잘 갖추고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인 2-3세대들이 한국문화와 한글까지 자산으로 갖춘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열린광장

'착한 치매'와 낱말 퀴즈



윤덕환 수필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친구 부부를 오랜만에 만났다. 식당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친구 부인은 우리를 뻔히 쳐다만 볼뿐 표정이 없었다. 친구는 아내가 '착한 치매'를 앓고 있으니 양해하라고 했다. 점심을 마치고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서니 부인도 따라나섰다. 친구는 아내가 남자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려 하니 내 아내에게 함께 여자 화장실에 다녀와 달라고 부탁했다. 말로만 듣던 치매 증상을 직접 목격하니 충격이 컸다. 앞으로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오래전 '나쁜 치매'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남편이 매일 요양원을 방문해 아내를 만나지만 아내의 남편을 못 알아본다. 물론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해 혼자 요양원 밖으로의 외출은 불가능했다. 갓난아기보다 더 많은 돌 봄의 손길이 필요했다. 나도 요즘 현재저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집 근처 노상 지나다니는 길 이롭고, 인근 도시 이롭고 생각이 나질 않아 구글 지도를 찾아보기도 한다. 이리다가 아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까 봐 '여보'라는 호칭 대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노화하는 뇌세포를 운동시켜 기억력을 증진하는 방법을 찾다가 신문에 게재되는 '낱말퀴즈'를 풀기 시작했다. 빈칸을 채우면서 마음에 찢리는 게 있었다. 오래전 맥도날드의 구석 자리에서 시니어 한 분이 신문을 펼치고 '크로스워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그분이 '킬링타임'을 하며 한심하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같은 것을 하고 있다. 그분께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낱말퀴즈는 수수께끼처럼 물어봐서 재미가 있다. 가령 '몹시 번덕스럽고 피가 많은 여자는?' 하고 묻는다. 잘 몰라 답을 보니 '블어유'라고 해서 한참 웃었다. 아내에게도 낱말퀴즈를 물어보면서 잘 모르면 첫 자를 알려주거나 몇 자라고 힌트를 준다. 요즘 내는 유튜브에 나오는 사자성어 낱말

퀴즈를 즐겨한다. 작년 여름 여행 때 비행기 옆 좌석에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앉았다. 그녀는 한 시간 내내 스도쿠(Sudoku:숫자퀴즈) 책자를 보면서 열심히 1-9까지의 숫자를 써넣고 있었다. 마치 간첩들이 쓴다는 난수표 같은 암호풀이 같았다. 그 모습이 신기해 회계 분야에서 일하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녀는 디자인 일을 한다고 했다. 내가 스도쿠를 신기해하니 한장 찢어 주며 해보라고 했다. 10여 분을 이리저리 시도하다 결국 못하겠다고 하니 그녀가 웃었다. 그러면서 본인은 10대 시절부터 식구들과 함께 스도쿠를 했다고 말했다.

고령사회인 일본은 고령자 5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로 그 숫자가 67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치매가 '어리석고 아둔하다'는 뜻이라고 해서 일본에선 이 말 대신 '인지증'이라고 표현한다. 한국도 치매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자연히 치매 환자도 늘고 있다. 육체 운동처럼 뇌세포 운동도 필요하다. 재미있게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낱말퀴즈를 권하고 싶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영주권/시민권, E2 비자/투자이민, 취업/가족초청이민, 비자변경 및 연장, 종교비자/이민,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회사설립/합병, 국제합작투자, 대정부계약/입찰구매,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임대차,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앞 빌딩 3층

SK PEST Management LLC BED BUG ELIMINATE!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571-992-5789 skpmva@gmail.com
주 택 ▶ 식 당 ▶ 상 가 ▶ 건 물

“마음이 가난하니 보이더라, 그 계란 프라이가”

금수저 엘리트 판사 출신 김성우 변호사
소년범에게 배운 인생

‘천생 판사’는 아니었다. 오히려 법원 식구들로부터 “김사를 했어도, 정치를 했어도 잘했겠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하지만 본인이 꼽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은 판사, 그것도 출세 가도에서 빗겨나 눈에서 파란빛 레이저를 쏘는 소년범들과 씨름하던 가정법원 판사 때였다. 그런 사람이 암 발병 때도 지켰던 법복을 스스로 벗었다. 소위 ‘사법 농단’으로 불렸던 사법 파동이 결정적 계기였다. 당시 공격당할 만큼 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렇기에 핍박받은 건 없었다. 다만 이념에 경도된 일부 정치적 판사들 탓에 사법부 전체가 문제 있는 집단이 돼버렸고, 자랑스럽고 가치 있다고 여겨온 판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어 내린 결론이었다. 이후 법조계의 손꼽히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가 돼, 상속 분쟁을 벌이는 대기업 회장 등을 대리하고 있다. 최근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을 쓴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5·사시 39회·연수원 31기) 얘기다.

인생이란 경기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기까지

그는 책에서 ‘가족 간 격렬한 상속 다툼이 어릴 적 우연히 바뀌 들고 온 오빠 도시락에만 들어있던 계란 프라이 같은 사소한 응어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작은 일이 큰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한다고 했다. 그의 사적은 물론, 어쩌면 큰 파장을 불러온 많은 나랏일도 그렇게 시작된 것일지 모른다. 김 변호사 아버지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고(故) 김광일 변호사다. 금수저 엘리트 판사의 반전 인생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 듣고 재구성했다.

인생 전반전

오만한 금수저 서울법대생

골칫거리가 된 모범생. 서울법대 입학(88년) 후 사법고시 합격(97년)까지의 삶은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다. 대학 신입생 때 아버지는 현직 국회의원이었고,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 정치특보를 했다. 어릴 때부터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수재가 집안 배경까지 좋으니 거리낄 게 없었다.

“사시는 100m 달리기인데 넌 왜 마라톤을 하느냐”던 아버지 말씀처럼 긴 시간 고시 폐인처럼 지내면서 적잖은 사고를 쳤다. 한번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한밤에 운전하다 아파트 단지 안 시계탑을 들이받았다. 깨진 차창 앞 유리에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될 만큼 중상이었는데도 야단맞을 게 무서워 인근 상가 지하로 도망갔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아버지는 밤새 아파트 단지를 뒤져 겨우 아들을 찾아냈다. 그러곤 “너를 감당 못 하겠다”며 신림동 고시촌으로 쫓아냈다. 윤석열 대통령, 나경원 전 의원



부친도 “감당 못 하겠다”던 금수저 혼자 잘 낚다 날뛴 때마다 경고장 암, 소년범, 사법 파동, 계란 프라이 욕심 버리니 거꾸로 채워지더라

등이 거쳐 간 서울 서초동의 그 유명한 EE 독서실의 한랑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렸다.

쫓겨나서야 정신을 조금 차렸고, 그렇게 몇 년 뒤 합격했다. 어차피 법무관은 나이 제한에 걸려 할 수 없으니 이 등병으로 입대해 법무관실에서 26개월 현역병 생활을 했다. 한참 어린 법무관들의 쓰레기를 치우고, 시키는 복사도 참 열심히 했다. 지금도 양손 복사가 능숙하다.

제대 후 ‘유급만 면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수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의외로 최상위권 성적을 받아 판사가 됐다. 게다가 첫 임지는 대법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엘리트 코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다. 이때부터 성공만 보고 달렸다. 기왕 이 길에 들어섰으니 무조건 이겨야지, 뭘 해도 제일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당연히 재판도 제일 잘해야지.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채워졌다. 성공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와 두 아들에게도 공감은커녕 내 잦아들 강요했다. 이 기준에 맞아야만 사랑스러웠고, 안 맞으면 고통스러웠다. 학창 시절 공부 못 하는 애들을 전혀 이해 못 했던 것처럼 이때까지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을 보면 열심히 안 해서, 최선을 다하

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속으로 무시했다. ‘계란 프라이’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도 공감하지 못했다. 참 잘 나가던 30대인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인생의 전환점은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인생 후반전

암이란 옐로카드 받은 엘리트 판사

안양지원 시절엔 구치소나 안양교도소에 서 중벌 선고하는 판사로 ‘악명’을 떨쳤다. 내가 맡은 형사 2단독에 걸리면 “집엔 못 간다”는 말이 피고인과 변호사들 사이에 돌 정도였다. 이렇게 천방지축 날뛰면서 칼을 휘두르던 2010년 암에 걸렸다. 갑상선암, 그것도 1기라 의사인 친형을 비롯해 주변에선 별거 아니라고들 했다. 그런데 질제 수술 전 검사에서 신장암까지 발견됐다. 전이가 아닌 원발성이고 1기였지만 무서웠다. 같은 병을 앓았던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2002년 암 치료를 받았다. 나온 줄 알았는데 2006년 전이돼 4년째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내 수술 한 달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도 아버지처럼 재발과 전이를 거쳐 곧 죽겠구나’ 싶은 공포가 극에 달했다. 죽는다 생각하니 법원에서 추구했던 출세·명예, 돈도 다 하찮았다. 오로지 아직 어린 두 아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만 바랐다.

주위 조언을 듣고 편한 데로 옮기기로 했다. 그렇게 간 계 서울가정법원, 그중에서도 “제일 편하다”는 소년재판이었다. 가자마자 가정법원 판사들이 “마음으로 재판해야 한다”길래, 속으로 ‘실력 없는 판사들이 사실·법리 대신 마음 운운한다’고 콧방귀를 끼었다. 그런 비아냥은 두 달 만에 꺾였다.

보통 하루에 60명쯤 보는데, 소리 지르며 야단치다 보니 오전 재판만 끝나도 번아웃이 된다. 법정에 가기 전엔 늘 ‘1~10호 처분 중 소년원 2년 보내는 가장 센 10호 처분을 내려야지’라고 마음먹는데, 막상 아이들의 기막힌 사연과 딱한 환경을 직접 들으면 마음이 약해지다 못해 눈물범벅으로 재판을 마치고 온다.

생각해보면 암이라는 옐로카드를 받아 마음이 가난해진 탓에 공감 능력이 최고조라 더 그랬던 거 같다. 시실행인 6~10호 처분 중 6호는 아동복지시설에서 6개월을 보내는 비교적 가벼운 벌이다. 일주일에 빈나질 재판만으로 업무를 끝내는 판사도 있지만 대다수 판사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 6호 처분 아이들을 챙긴다. 주기적으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방문하고, 숙제로 내준 애들 편지에 일일이 답장하다 보면 결국 형사 단독 때보다 더한 격무에 시달렸다. 그래도 아침에 난만 뜨면 한시라도 빨리 법원에 가고 싶었다. 나야지는 애들을 보는 게 너무 좋았다. ‘레드카드가 아닌 옐로카드를 받은 건 이런 일을 하라는 하늘의 뜻인가보

다’ 싶었다.

인생의 인저리타임

지는 법 배워 행복한 변호사

서울법대생, 엘리트 판사... 잘 나가던 인생 전반전엔 성공이 전부였다. 소년재판을 통해 법조인, 심지어 매출로 평가받는 변호사에게 조차 제일 필요한 덕목이 ‘최고’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배웠다.

소년재판 시절 6호 처분으로 종교시설에 입소한 애들을 방문하면, 수녀님들이 늘 처분 내린 판사별로 애들을 모아놓았다. 1단독 판사는 왔는데, 2단독은 없으면 재판 때 그렇게 대들고 욕하던 애들조차 “우리 판사님 어디 갔느냐”고 애타게 찾는다. 어른한테 야단도 제대로 못 맞아봐서 그 정도 관심도 고픈 아이들이라 나오는 반응이었다. 이 애들은 처음엔 판사가 시키니 어쩔 수 없이 아주 무성의하게 편지를 써오는데, 일일이 답장을 보내면 아이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진심이 담긴 그 편지들을 아직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

그 시절 한 달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는 임시보호처분도 많이 내렸다. 잠깐 멈춰 서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보라는 취지였다. 당사자는 물론 때론 부모 역시 처음엔 극렬하게 항의하는데 한 달 후 법정에서 다시 만나면 고마워하지 않은 경우를 보지 못했다. 이처럼 한 명이라도 나로 인해 다른 길을 가게 된다면 판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성공만 좇을 땐 안 보이던 것들이다. 돌이켜 보니 내가 아이들을 인도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인도했다. 그 시절을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로 꼽는 이유다.

솔직히 아직도 욕심을 완전히 버리진 못했다. 명예도 얻고 싶고, 기왕 돈에 팔려왔으니 돈도 많이 벌고 싶다. 다만 달라진 건 스스로 내려놓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리고 놓으면 채워지는 게 있다는 걸 안다는 점이다. 전엔 남의 눈을 많이 의식했다. 이젠 내가 정말 진심으로 했다면 설령 결과가 기대보다 좀 나빠도 괜찮다.

이렇게 일을 대하는 태도는 물론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소년재판 경험을 통해 많이 달라졌다. 부모가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잘못되는지 잘 안다. 내가 예전에 했듯이 무조건 욱박지고 들어주지 않으면 애들은 옳다간다. 애들이 더 크기 전에 그걸 알게 돼서 다행이었다. 이젠 20대가 된 두 아이한테는 “네가 선택한 길은 아빠가 무조건 지지한다”고 말해준다.

옐로카드 받고 나서 전성기를 지나 지금은 내 인생의 인저리 타임(추가시간)이다. 골을 넣을 수도, 거꾸로 골을 막을 수도 있지만 진심을 다하고 있으니 그거로 됐다.

안혜리 논설위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거래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리지몬드
페닌슐라
상담관영

“격정도 많고, 금근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변호사 임종범

시 설

대한민국의 미래, 오늘 당신의 한 표가 결정한다

윤석열 정부의 항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이미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3%를 기록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아직 유권자 10명 중 7명 가까이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선거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주춧돌이자 운영 원리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로도 여겨진다. 우리는 왜 반드시 투표해야 하는가.

첫째,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직하고 합리적인 후보를 많이 뽑아야 국가 발전이 촉진된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견제·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회의원들이 유능해야만 정부의 일탈을 따끔히 지적하고, 민의가 잘 반영된 입법을 할 수 있다. 반대로 무능하고 정파적인 의원이 많으면 국회는 오히려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만다. 22대 국회를 어떤 수준의 의원들로 채울지는 오늘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

둘째, 선거는 중요한 정치·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노선이나 정책 방향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하고, 선거를 통해 민의가 확인되면 그에 맞춰 국가 운영 방침이 바뀌게 된다. 대통령 선거는 정권 운영의 주체를 직접 결정하는 선거지만, 국회의원 총선도 국회 다수당이 누가 되느냐를 가려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총선에서 비명횡사·막말·도주대사·대과 등의 정치적 논란 때문에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상당히 다른 정책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실제로 외교안보·조세·에너지·노동·젠더 등의 공약을 보면 양당의 입장 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제반 분야에서 여러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 2024년 정부 예산은 656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이 막대한 돈이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는지는 국회가 감시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총선에서 예산 감시원을 뽑는 셈이다.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꼭 투표에 참여해 누가 제일 훌륭한 예산 파수꾼이 될지를 판정해야 하는 이유다. 넷째, 투표율이 높아져야 국회의 대표성이 커진다. 대선에서 총유권자 대비 득표수가 정권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투표율이 높아야 대의민주주의에 한층 더 정당성이 실릴 것이다.

이처럼 투표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공공선(Common Good)을 구현하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다. 22대 총선은 기본적으로 정부 집권 23개월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는 이벤트다.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여러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인 정책 노선은 옳다고 보고 재신임할지, 아니면 기존의 국정 플랫폼을 허물고 전면적인 재건축을 촉구할지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동시에 이번 총선은 야당의 수권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장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 기간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대체할 비전과 자질을 보여줬는가. 이 부분 역시 유권자의 중요한 투표 기준이 될 것이다. 유권자들이 냉철한 판단력으로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참여의 확대를 한국의 미래를 결정해 주길 기대한다.

윤석열 정부 집권 23개월 중간평가이자 야당의 수권 능력 역시 중요한 투표 기준 “최선 없으면 차선”의 판단과 참여 소중해

“AI 3대 강국 도약”…반도체 국가 총력전, 과감히 지원해야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 기술 분야에서 주요 3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AI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 AI 위원회’를 신설해 AI 반도체 분야의 민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시장의 무게중심이 AI 반도체로 이동하는 만큼 이를 선점해 세계를 제패했던 메모리 반도체에 이은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내려가겠다는 것이다. 국가 총력전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 경쟁에 우리 정부도 뛰어들어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각국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경쟁 중이다. 보조금 지급과 각종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반도체 부활을 모색하는 일본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공장 건설 등에 1조2000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반도체 동맹을

형성 중이다. 미국도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내걸고 첨단 반도체 시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인텔은 이미 19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TSMC에는 66억 달러의 보조금과 함께 50억 달러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60억~7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전시 상황에 맞는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과감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정부가 전기와 공급용수를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밝힌 건 의미가 있다. 청사진만 펼치고 끝난다면 총선을 앞두고 수원·용인 등 ‘반도체 벨트’를 잡기 위해 공약을 남발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감하고 전폭적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만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실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투표하는 게 맞을까

고정애의 시사각각 時視各角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단순다수제(first-past-the-post)가 지배한다. 대선이든, 총선 지역구든, 지방선거든 한 표라도 많으면 승자가 된다. 실제 지방선거에선 한 표 차로 이긴 사례가 있다. 총선에선 세 표 차였다(2000년 경기도 광주).

분명 그렇지 않은 세계도 있다. 후보자가 세 명 이상일 경우 과반 아닌 후보가 당선되곤 하는데, 대표성이 충분하냐는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19대 대선에 예일 수 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 포인트 차로 당선됐다(득표율 41.1%). 기권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로 보면 10명 중 7명(68.4%)은 문 대통령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

단순다수제의 경향이 가장 오랜 영국에선 그래서 19세기부터 대안이 모색됐다(영국답게 여전히 단순다수제다). 토머스 헤어가 제안했고,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이 열렬히 옹호한 방식이 그중 하나인데, 단기이양(單記移讓)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다. 밀의 설명은 이렇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일차적으로 선호하는 후보 외에 차선의 후보 이름도 적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이 일차적으로 지지한 후보가 당선 가능한 수의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그다음 순위의 후보가 득을 볼 수 있다.”(『대의 정부론』)

대영제국에서 퍼져나가던 아이디어는 호주에서 실현됐다. 한 번의 투표로 과반 당선자를 만들어낼 비법을 찾아냈다. 1918년부터 적용된 선호투표제(preferential voting)다. 5명이 후보라면 투표할 때 1위부터 5위까지 선호도를 표기한다. 개표할 땐 1위 표부터 센다. 절반에서 한 표라도 많은 이가 나오면 그가 당선된다. 없다면 꼴찌(5위) 표에 표시된 2순위 후보에게 꼴찌 표가 배분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되풀이한다. 첫 선호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자가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3위 표도 중요해진다. 호주는 투표가 의무이기도 하다. 집단적 거부감을 받는 차선을 해선 곤란하다.

단순다수제와 선호투표제가 어떤 차

이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할 수 있겠다. 누군가 2022년 호주 하원 선거를 분석했는데, 151석 중 16석에서 1위 최다 득표를 하고도 당선되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집권당인 ‘연합(자유당·국민당 연합)’에서 노동당이나 소수당·무소속(기타)으로 바뀐 게 많았다. 단순다수제였다면 ‘연합’이 과반에서 3석 모자란 73석으로 노동당(71석)을 제치고 1당이 됐을 것이다. 실제론 노동당이 과반(77석)을 했고, ‘연합’은 53석으로 쪼그라들었다. 기타가 7석에서 16석으로 크게 늘었다.

넬리 알러졌다시피 프랑스의 세계는 또 다르다.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가 제안한 방법을 변형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끼리 결선투표를 치른다. 프랑스가 극우정당(국민연합)의 위협을 그나마 저지해 올

한 표 더 많으면 되는 단순다수제 열성층 동원하는 혐오정치에 취약 중도층 위해 결선투표 등 검토해야

수 있었던 비결이다. 2022년 대선에서도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이 1차 투표에서 23.7%를 얻었으나 결선투표에선 17.8%포인트 늘리는 데 그쳤다.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령은 28.5%에서 58.6%가 됐다.

이미 22대 국회는 21대 국회 이상으로 최악일 거라고 예상된다. 경쟁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더 자극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욕설하는 데 능숙한 인물들이 후보가 됐고, 열성적 지지층만 동원해도 당선 가능한 걸로 나온다. 오래 전부터 조짐은 있었으나 이젠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듯하다. 최악을 상상해도 그 이상의 최악이 등장하고 있다. 반면에 혐오를 혐오하는 중간지대는 발언권을 잃어 간다.

어떤 투표제도 완벽하진 않다. 그렇더라도 혐오 정치의 시대에 단순다수제는 너무나도 한계가 뚜렷하다. 열성 지지층에 과도한 발언권을 준다. 일종의 프리패스가 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니, 병립형 비례대표제니 하는 것 이상으로, 투표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됐다.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e.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기자재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사 인터넷 기사 게재 시 약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NHK, 日本経済新聞	지역 권역(주)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April 10, 2024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중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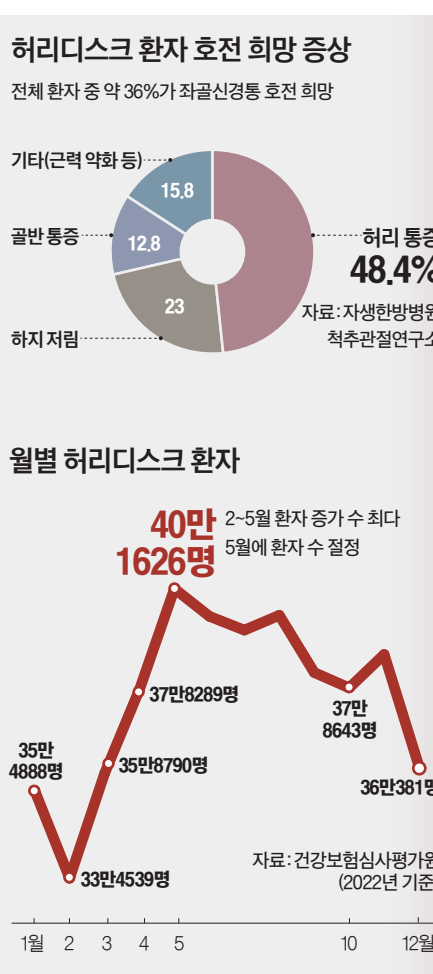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용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저릿저릿 내 다리도 혹시? 벚꽃놀이철 허리디스크 주의보

최근 봄비가 다녀간 이후,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갑작스럽게 찾아온 꽃샘추위로 인해 몇몇 지자체에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가 진행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서울에도 벚꽃을 비롯한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는 등 올해 다시 두꺼운 패딩을 꺼내 입을 일은 없을 듯하다.
봄이 완연하게 찾아온 만큼 야외에서 포근한 날씨를 즐기려는 상춘객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주 토요일 도로교통공사가 추산한 통계에 따르면 총 528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에 몰려 심한 정체에 시달렸다고 한다. 벚꽃 구경을 위해 떠나는 발길은 이번 주말 정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좌골신경통도 그러나 계절이 바뀐 직후 활동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전히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아침, 저녁에는 근육 긴장도가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증가한 활동량에 따라 척추·관절에 부담이 누적되기 쉬운 증상이 심해지곤 하는 것이다. 실제 4월은 연중 허리디스크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년 통계 기준 3월 35만여명이었던 허리디스크 환자 수는 4월 38만 명, 5월 40만 명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허리디스크는 오추(허리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추간판)가 제 자리를 벗어나 신경을 압박하면서 발생한다. 보통 허리디스크의 주요 증상으로 허리 통증을 떠올리기 쉬운 이유다. 그러나 같은 허리디스크라도 손상된 디스크가 자극하는 신경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엉덩이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과 더불어 '하지 저림'(23%) '골반 통증'(12.8%)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전체 허리디스크 환자 중 3분의 1이 넘는 수가 좌골신경통의 호전을 가장 원하고 있던 셈이다.
좌골신경통의 원인은 비단 허리 디스크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 척추 내부 신경 통로가 점점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척추관협착증이 꼽힌다.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좌골신경통은 오래 앓았을 때 움직일 때 엉덩이 혹은 다리 쪽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반면, 허리디스크의 경우 허리를 숙이거나 좌우로 움직일 때 심해진다. 질환에 따라 양상이 다르지만 좌골신경통은 방치할수록 점차 증상이 심해지고 근육을 위축시켜

봄철 활동 늘어 환자 증가, 5월 최대
손상된 허리뼈 디스크가 신경 압박 엉덩이~다리 좌골신경통 대표 증상
한의학 추나·약침 등 병행치료 효과 디스크 퇴행, 흡연자가 85% 더 심해

근력을 약화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다. 좌골신경통이 심해지면 마비까지 올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진료를 받아 증상 원인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과 침, 약침, 한약 등을 병행하는 '한의통합치료'로 좌골신경통 및 허리디스크를 치료한다. 먼저 한의사가 직접 어긋난 뼈를 밀고 당기며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통해 척추 사이의 공간을 넓혀 돌출된 디스크가 가하는 압박을 줄여준다. 또한 침 치료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킨다.
박중훈 안산자생한방병원 병원장
▶ 4면 '허리디스크'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메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야곱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여성 암 발생 1위, 양성 종양 안심 금물... 치밀 유방도 'X선 검사' 받아야

유방암 바로 알기 어느 질환이든 선입견이나 오해가 존재한다. 사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종종 질환이라면 무게감이 달라진다. 발생이나 치료에 있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암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갑상샘암을 넘어 여성 암 발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유방암도 마찬가지다. 유방암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 류장훈 기자

✗ 잦은 유방촬영술이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
유방촬영술(맘모그라피)은 X선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유방암 검사다. 하지만 이 검사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미미하다.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다. 게다가 요즘 사용되는 디지털 맘모그라피를 통한 방사선 피폭량은 필름 시절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학회 차원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권한다.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꾸준한 검사가 필요하다.

✗ 치밀 유방은 유방촬영술이 큰 도움 안 된다
유방암 검진에 유방촬영술과 유방 초음파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유방암 전 단계나 초기에는 혹이나 미세석회화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치밀 유방이라도 유방촬영술은 미세석회화를, 유방 초음파는 혹을 잘 잡아낼 수 있다. 미세석회화의 경우 초음파상으로는 잘 안 보여 놓칠 수 있다. 치밀 유방 여부와 관계없이 두 가지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 유방 통증과 멍울 중 멍울이 더 중요하다
유방에 느껴지는 통증은 사실 유방암과는 별 관계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멍울이다. 없던 혹이나 멍울이 만져진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반드시 검사를 받아 봐야 한다. 혹이나 멍울이 실제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를 보면 통증이 없는 때도 많다. 멍울이 양성 종양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경우 암과 구별이 불가능하다.

○ 출산과 모유 수유가 유방암 위험을 낮춘다
유방암 발생률과 위험도는 여성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진다. 그래서 조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여성의 유방암 위험은 더 크다. 근대 임신과 모유 수유 중에는 여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 따라서 출산과 모유 수유가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 건 맞다. 단, 맹신하면 위험하다. 다자녀를 출산하거나 모유 수유를 한 유방암 환자도 있기 때문이다. 유방암 위험 요인은 여성호르몬 노출 기간만이 아니다.

○ 비만인 여성일수록 유방암에 잘 걸린다
정확히는 폐경 후에 두드러진다. 폐경 전 여성은 비만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근대 비만이 위험 인자인 이유는 지방세포가 여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소스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든 폐경 후 여성은 지방에서



“ 여성호르몬 노출 길수록 발병 위험 폐경 후 호르몬 치료 5년 이내 권장 혹·멍울 만져지면 반드시 검사를 ”

여성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된다. 즉 비만인 폐경 여성의 여성호르몬 레벨은 비만이 아닐 때보다 더 높아지고, 유방암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 콩을 많이 섭취하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콩 단백질이 있는데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분자 구조를 지녔다. 따라서 이소플라본이 여성호르몬 수용체에 대신 결합할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도 이를 통해 여성호르몬의 작용을 막아 항암 효과를 낸다는 의견과 오히려 여성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단, 유방암 환자에게는 콩 섭취량을 줄일 것을 권장한다.

✗ 양성 종양, 3cm 이상 증식성일 때만 제거하면 된다

일단 양성 종양을 절제하는 데 사이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양성 종양으로 확인된 경우 일단 지켜보다가 점점 자라는 증식성은 계속 세포분열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암 가능성과 환자의 심리적 압박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제거한다. 양성 종양 중에서도 비정형 유관증식증이나 엽상피내암 등 유방암 전 단계라던 무조건 제거하는 게 원칙이다. 만져지지 않는 크기의 섬유선종은 대부분 제거하지 않는다.

○ 폐경 후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폐경 증상 완화를 위한 호르몬 치료가 여성호르몬 노출 기간을 사실상 늘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유방암 위험을 감안했을 때 폐경 후 호르몬 치료는 5년 이내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때는 폐경

후 환자의 삶의 질과 유방암 위험도 양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마다 호르몬 치료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 점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커지면 유방암 징조다
과거부터 점이 많은 사람이 유방암에 조금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다. 실제로 역학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유방암 환자 중 점이 많은 사람이 약 30% 더 많았다. 이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유방암 환자와 점이 많은 사람에게 여성호르몬 수치가 높다는 공통 분모가 있을 뿐이다. 점이 많은 사람의 유방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간 더 높다는 것은 맞지만 점이 새로 생기거나 많아지는 증상이 유방암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가.

권선미 기자의 월요약담회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마다 '듣는 약' 제각각... 교체 투여 허용해야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인 아토피는 대표적인 난치병이다. 어렸을 때 잠깐 앓고 지나가는 병으로 생각하지만, 10~30%는 평생 만성적 피부 염증으로 괴로워한다. 피부가 좋아졌다가 나빠지길 반복하는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 등 피부 증상 관리가 중요하다. 가려움증을 참지 못하고 긁으면 상처·흉터가 생기고, 2차 감염으로 피부 상태가 더 악화한다. 극심한 가려움증, 습진성 피부 병변, 피부 건조증 등 다양한 아토피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 전략이 중요한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

로 아토피 병변이 넓고 증상이 심할 땐 염증 물질을 표적화해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생물학적 제제, JAK억제제 등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아토피 표적 치료를 시도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유독 엄격한 치료 기준이 적용돼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산정 특례가 적용돼 연간 치료비 부담이 줄었는데도 그렇다. 원인은 약제의 교체 투여 제한이다. 현재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급여 기준으로는 부작용이 있거나 치료 효과가 불충분해도 치료제를 바꿔 쓰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생

물학적 제제로 치료를 받다가 JAK억제제로 바꾸거나, JAK억제제를 쓰다가 다른 약으로 교체하는 모든 교체 투여가 불가능하다. 환자 입장에서는 처음 선택한 약이 부작용이 심하거나 치료 효과가 부족해도 산정 특례와 건강보험 급여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를 감내하고 불충분한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개별 환자 간 이질적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첫 선택에서 나와 궁합이 맞는 약을 찾지 못해 다른 치료제를 쓰려면 비급여로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

거나 증상을 악화시킨 다음 4개월 동안 단계별 치료를 다시 거쳐야 한다.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약을 바꾸는데 증상을 악화시켜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안타깝게도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서 교체 투여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호주·영국·캐나다 등 생물학적 제제, JAK억제제가 허가·급여되는 국가에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교체 투여가 이뤄지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과 비슷하게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인 중증 류머티즘 관절염, 강직척추염, 건선 등을 치료할 땐 국내에서도 근거

수준, 질환 중증도 등을 고려해 교체 투여를 허용하고 있다. 환자들 사이에서 아토피 피부염만 차별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이런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의료진도 교체 투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아토피피부염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중증도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치료제 간 교체 투여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토피 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개개인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해 보인다.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53.9%	42.9%	2.3%	0.0%
대우홍순	당뇨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성,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Sciatica

척추관 협착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구부러기 힘들다

75°

30°

뒤로 피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힘이 없어 집지 못함

방아쇠

피지지 않음

toes cramps 발가락 뭉침

발목 뻠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혜민한의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 / NerveControlSNC.com

일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도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센터 탐방 민트병원 혈관센터

혈관 만드는 조성술, 막히면 뚫는 개통술 특화... '혈액투석' 최적의 치료



민트병원 김건우 대표원장은 "원활한 진료과 간 협진으로 다양한 투석 혈관 문제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말했다.

인성욱 객원기자

Tip 민트병원 혈관센터 연혁

- 2008년 민트영상의학과의원 개원
- 2013년 혈관인터벤션센터 개소
투석 혈관 개통술 치료
혈관 심포지엄 개최
- 2015년 혈관외과 전문의 합류
혈관센터 확장
투석 혈관 조성술·교정술 시행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교육 협력
- 2017년 민트병원(2차 병원) 확장
수술실 2개
혈관조영실 4개
- 2019년 보건복지부 표창
일반병원 최초 인터벤션영상의학회 라이브 시연
- 2022년 혈관 치료 2만 건 돌파
혈관센터 의료진 6인 체제
(인터벤션영상의학과 4명, 혈관외과 2명)
- 2024년 혈관 치료 3만5000건 돌파

만성 콩팥병은 콩팥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지속하는 질환이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는다. 콩팥병의 원인이 되는 당뇨병·고혈압 환자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만성 콩팥병이 계속 진행하면 콩팥의 사구체 여과 기능이 영구적으로 감소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한다. 이런 말기 신부전 환자는 신장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혈액·복막 투석이나 콩팥 이식을 해야 한다. 특히 혈액투석은 가장 중요한 신대체 요법으로 꼽힌다. 말기 신부전 환자 10명 중 7~8명이 혈액투석을 받는다고 알려진다. 혈액투석은 환자의 혈액을 끌어내 투석 기계에 순환시키면서 혈액 속의 노폐물과 과잉 축적된 수분을 제거한다. 다음 다시 체내로 돌려주는 치료다. 평균 1회당 4시간씩 주 3회 시행한다.

조성술·개통술 융합 치료로 효과 극대화
환자 입장에서 투석 혈관은 생명 길과도 같지만, 막상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선다. 민트병원 혈관센터는 이런 환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는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의료 서비스를 선보인다. 투석 혈관 치료는 크게 투석 혈관을 만드는 조성술과 투석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뚫는

개통술로 구분한다. 민트병원 혈관센터는 투석 혈관 조성술·개통술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췄다.

혈액투석을 하려면 환자의 혈액을 분당 500mL 전후로 끌어낼 수 있는 혈관 접근로가 필요하다. 몸에 원래 있는 혈관으로 투석이 어렵다. 정맥은 벽이 약한 데다 혈류가 느리고, 동맥은 몸속 깊이 있어 찾기 힘들고 혈류가 강해 손상과 출혈의 위험이 높은 탓이다. 따라서 투석 3~4개월 전에 미리 동맥과 정맥을 인위적으로 연결해 투석에 용이한 혈관을 조성한 뒤 성숙시켜 투석에 활용한다.

문제는 한 번 만든 투석 혈관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대개 수명이 자가 혈관은 4~5년, 인조 혈관은 2~3년으로 짧은 편이다. 투석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압력의 동맥혈이 흘러 혈관에 자극을 주고 굵은 바늘을 꽂았다 빼는 과정을 반복해 굳은살이 생기면서 서서히 좁아지고 막힌다.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뚫는 데는 주로 시술 도구를 혈관 안으로 진입시켜 해결하는 혈관 개통술을 활용한다. 피부를 찌개하지 않아 상처나 통증이 적으며 회복이 빠르다. 필요에 따라선 투석 혈관을 적당한 크기와 굵은 경로로 다듬거나 새 길을 터주는 교정술을 진행한다.

투석 혈관을 튼튼하게 오래 유지하려면 이렇게 조성부터 개통, 교정, 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민트병원 혈관센터는 인터벤션영상의학과 전문의 4명, 혈관외과 전문의 2명,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2명이 상주한다. 수술실, 하이브리드실, 혈관 조영 장비가 구축된 시술실이 총 6곳으로 대학병원급 이상의 치료 환경을 조성했다. 기존엔 혈관외과에서 조성술 따로, 인터벤션영상의학과에서 개통술을 따로 받는 식으로 치료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곳에선 혈관외과·인터벤션영상의학과 의료진 모두가 원팀이 돼 움직이면서 유기적으로 협진한다.

원활한 협진 시스템은 투석 혈관에 협착·폐쇄·혈전·동맥류·석회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빛을 발한다. 인터벤션 시술과 수술을 결합한 융합 치료는 투석 혈관 곳곳에 산발적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민트병원 김건우(인터벤션영상의학과 전문의) 대표원장은 "관련 의료진이 함께 환자 상태를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며 "투석 혈관 조성술·교정술, 혈관 개통술 등 가장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처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민트병원 혈관센터는 지금껏 약 3만5000건에 달하는 혈관 치료 성과를 냈다.

혈액투석 환자는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늘 투석에 얽매어 있다 보니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다. 언제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검사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여러 번 왕래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한다. 민트병원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긴 대기 없이 검사와 시술·수술, 결과 설명까지 하루에 가능하도록 원스톱 진료를 추구한다. 김 대표원장은 "전담 외래 직원이 접수부터 검사·시술·수술, 결과 설명까지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를 관리한다"며 "진료과 간 원활한 융합 시스템을 운영한 덕분에 환자의 불편과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투석 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응급 상황에서 발 빠른 대처로 환자 만족도를 높인다. 혈액투석을 받는 중 혈관이 막히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재개통하거나 필요하면 새로운 투석 혈관을 만드는 수술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응급 투석실을 운영해 시술 직후 타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투석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냈다. 김 대표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가장 막막해지는 부분이 뭘지 찾아 불편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을 발 빠르게 적용해 나간 결과, 센터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환자·보호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인 대상 치료법 심포지엄 개최
올해 개원 16주년을 맞은 민트병원은 대학병원에만 갇혀져 있던 인터벤션센터를 개원가에 처음으로 도입해 영상의학과·산부인과·혈관외과·내과가 융

합한 다학제 시스템을 선보인 곳이다. 특히 혈관센터는 타 진료과 전문 문제와 오랜 대기 시간, 높은 비용 부담과 같은 환자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한다. 환자 편의를 위해 전담 외래 진료를 운영함에 따라 상담과 정기검진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전담 간호사 1인이 돌보는 환자 수를 따지는 간호등급 평가에서 최고 등급(A)을 유지하고 있어 좀 더 전문적이고 세심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투석 혈관은 평소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질환과 치료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민트병원 혈관센터는 지역의 투석병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투석 혈관의 관리법·치료법을 다루는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의료인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투석 환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된다는 차원에서다. 김 대표원장은 "지역 의료인을 대상으로 투석 환자와 혈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혈관 관리법과 주요한 시술·수술법에 대한 특별 강의를 주기적으로 해왔다"며 "민트병원 혈관센터는 투석 혈관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치료와 대응이 가능해 3차 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환자 가까이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치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영 기자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오차 줄인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정확도 높고 출혈·통증 최소화

무릎은 직접 보호하는 체중을 지지하고,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 무릎관절도 삐걱거린다. 말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속 연골이 모두 닳아 없어지면 딱딱한 뼈와 뼈가 충돌해 생기는 극심한 통증으로 절뚝거리면서 걷는다. 이때는 무릎 통증을 참으며 지내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울퉁불퉁 닳은 무릎 연골과 뼈를 제거한 다음 이를 대신할 무릎 인공관절을 이식한다. 최근엔 무릎 뼈 절삭 오차를 최소화한 ‘큐비스 조인트’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주목한다. 사람마다 다른 무릎의 크기·생김새·손상도 등을 분석해 치료 만족도를 높인다. 해부학적 각도만 고려해 일괄적으로 어느 부위를 절삭할지 결정한 것보다 진보한 수술 기법이다. 분당 서울나우병원 3세대 완전 자동형 수술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배경이다. 류호광 분당 서울나우병원 로봇인공관절센터장은 “무릎뼈를 더 정밀하게 절삭하고 좌식 생활 등 한국인의 일상을 반영한 인공관절 디자인으로 편안하게 무릎을 구부리고 펴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 탐방 분당 서울나우병원

무릎 인공관절은 로봇 수술이 활발하게 적용하는 분야다. 고령층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 결과를 가져오는 신기술로 근거를 쌓고 있다. 분당 서울나우병원은 3세대 완전 자동형 무릎 인공관절 로봇으로 초정밀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선도한다. 무릎뼈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시각화해 수술 정확도를 높이면서 한국인에 최적화된 인공관절 디자인으로 자연스러운 무릎 운동성 복원을 추구한다. 권선미 기자



분당 서울나우병원 류호광 센터장이 3차원 입체 영상을 보면서 로봇을 활용해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완전 자동형 로봇 수술은 계획된 부분만 절삭해 초정밀 수술이 가능하다. 인성욱 객원기자

건강한 뼈 더 많이 보존, 회복 빨라 분당 서울나우병원에서 시행하는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의 장점은 네 가지다. 첫째로 무릎뼈 절삭 정확도가 높다. 분당 서울나우병원에서 도입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는 미세 절삭이 가능한 동그란 원 형태의 절삭 도구인 엔드밀로 뼈를 자른다. 무릎뼈를 자르기 위해 수술용 톱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생기는 절삭 오차를 최소화한다. 류 센터장은 “엔드밀은 무릎뼈 절삭 오차를 0.5mm 이하로 줄여준다”고 말했다. 수술 중 뼈의 미세한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하는 BMM(Bone Motion Monitor) 기능으로 뼈 절삭 정확도를

극대화해 건강한 무릎뼈를 더 많이 지킬 수 있다.

둘째로 수술 후 일상 복구가 빠르다. 큐비스 조인트 로봇은 수술 전 촬영한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토대로 현재 무릎관절의 상태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정확하게 예측한다. 이를 토대로 해부학적으로 오차 범위가 1mm 미만일 때까지 여러 번 가상 수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세운다. 이를 통해 고관절(엉덩이)·무릎·발목의 정중량을 잇는 중심축이 일직선을 이루며 올바른 상태를 만든다. 하체 중심축에서 3도 이내에 위치하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데, 로봇 수술은 중심축이 1도 이내에 위치해 하체 정렬 정확도를 더 높인다.

이외에도 무릎뼈 절삭을 돕는 별도의 수술 도구를 체내 삽입하지 않고 로봇으로 하체 중심축을 파악한다. 실제 수술에서는 계획된 부위만 정확하게

절삭하면서 주변 조직이나 근육·혈관·인대·신경 등 불필요한 손상을 최소화한다. 최소침습적 치료로 덜 췌는 만큼 무릎이 덜 붓고 통증·출혈이 적다. 안태수 원장은 “수술 당일부터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재활 운동을 시작하는데 더 수월하게 움직인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초기 재활로 무릎 운동성 개선 등 예후도 긍정적이다. 고령이라면 체력적 부담을 줄여주면서 안전하고 빠른 재활이 가능한 로봇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한국인 생활 감안해 가동 범위 넓혀

셋째로 양반다리나 쪼그러 앉는 좌식 생활이 가능하다. 분당 서울나우병원에서는 인공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힌 한국형 인공관절 ‘b.r.q Knee(Bending, Rotating and Quantum leap Knee)’를 사용한다. 앉을 때 무릎을 완전히 굽히는 양반다리 자세 등 좌식 생활에 익숙한 한국인은

무릎 앞부분 중에서도 안쪽이 더 많이 닳는다는 점 등을 반영한 인공관절이다. 분당 서울나우병원 강형욱 이사장 팀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

“계획된 부위만 정밀하게 절삭 주변 조직 불필요한 손상 줄여 체력 약한 고령층도 빠른 재활

술을 받은 한국인의 무릎뼈 356개를 실측해 무릎 형태를 분석해 인공관절 디자인을 개선했다. 무릎을 150도까지 굽힐 수 있다. 무릎을 완전히 굽혀 꿇어 앉을 때 필요한 각도다. 좌식 생활은 불편했던 기존 인공관절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넷째로 우수한 내구성으로 재수술

없이 남은 여생을 지낼 수 있다. 대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65세는 넘어야 한다.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처음 받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중요하다. 전성환 원장은 “이식한 무릎 인공관절이 빨리 닳으면 더 늦어서 또다시 수술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관절의 내구성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b.r.q Knee’는 무릎을 굽혔다 펴 때 인공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고루 분산하면서 질화티타늄(Tin)으로 특수 코팅해 인공관절 표면에 흠집이 덜 생기도록 했다. 인공관절의 유형별로 마모도가 어떻게 다른지 측정하는 검사에서 ‘b.r.q Knee’의 마모도는 2.48로 가장 낮았다. 고정 연골판을 사용하는 인공관절은 22.5, 움직이는 연골판을 사용하는 인공관절은 7.5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10~15년 정도였던 인공관절의 수명을 20년 이상으로 늘렸다.

▶1면 ‘허리디스크’에서 이어집니다

이어 함유 작용과 신경 재생 효과가 높은 약침을 경혈에 주입해 염증을 빠르게 해소하고 신경 증상을 완화한다. 한 약재의 유효한 성분이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된 약침에는 천연물질 ‘신바로메틴’ 성분이 포함돼 있다. 2013년 미국에서 물질 특허를 받은 신바로메틴의 근육과 인대·뼈 강화와 신경 재생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

증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약해진 뼈와 신경 재생에 좋은 한약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높인다.

이달 말부터 허리디스크 침약 견보 적용

특히 허리디스크 환자의 경우 침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이달 말부터 한약(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최대 30%로 비용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다. 향후 더 많은 환자가

경제적인 혜택과 안정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뿐만 아니라 평소 건강관리 및 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이다. 걷기나 수영, 체조 등 규칙적인 운동은 기초 대사를 높여 체중 감량을 촉진하고 근육과 인대 발달을 도와 척추질환 예방·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신체 유연성과 근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경우 도리어

근육이나 인대를 손상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했다면 시간과 강도를 낮은 단계부터 천천히 늘려가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금연, 금주와 같은 생활습관 개선도 필수적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연구진이 동문 1300명을 50여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흡연자의 디스크 퇴행 정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85%나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지나친 음주도 흡연과 마찬가지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체내 염증 수치를 높여 염증을 악화시킨다.

강철도 가만히 두면 녹이 쓴다. 이는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다. 겨울을 보내며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소홀해진 상태에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봄맞이 준비에 개개인의 건강 관리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박종훈 안산시생방병원 병원장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small>Cataract Laser Surgery</small>	안구 건조증 치료 <small>Dry Eyes Therapy</small>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small>Glaucoma Laser and Surgery</small>	당뇨병 레이저 & 주사 <small>Diabetes Laser and Injection</small>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small>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small>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small>Eyelid Surgery (Blepharoplasty)</small>
정기적인 눈 검사 <small>Routine Eye Exam</small>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의학 칼럼

일차성 두통이란 뇌출혈이나 뇌종양과 같은 이차적인 원인 없이 생기는 두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이 널리 알려져 있다. 통계에 의하면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은 대부분 누구나 일생에 한 두 차례 평균적으로 경험한다고 한다.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면 머리에 짜조이는 머리띠나 밴드를 두른 듯한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두통으로, 말 그대로 머리 주위 근육의 긴장 및 근육의 수축으로 나타나는 두통이다.

보통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다른 여러 원인들에 의해 유발되는 두통으로 그 치료 또한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와 달리 편두통은 머리 속, 정확히는 뇌를 구성하는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의 문제로 야기되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두통 증후군이다.

과거에는 편두통을 머리 주의 혈관의 과도한 이완과 수축으로 야기된다고 하여 “혈관성 두통”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었던 적이 있다. 지금은 이러한 개념에서 벗어나 편두통은 뇌 자체의 질병, 즉 뇌질환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질병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질병의 개념이 바뀐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또다른 개념의 일차성 두통으로 이름하여 ‘지속성 반두통’과 ‘SUNCT’라고도 불리는 ‘결막 충혈과 눈물을 동반한 단기 지속성 신경통형 두통 발작’이라는 긴 이름의 두통 증후군이 있다. 이 새로운 이름의 두통은 뇌의 깊은 곳의 중요한 구조물의 하나인 뇌간에서

일차성 두통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부터 발생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뇌간은 중뇌, 교, 그리고 연수의 세 부위로 구성되어 있다.

뇌간의 뒷 부분에는 운동 및 평형 감각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뇌가 위치하고 있고, 아래로는 뇌로부터 나오는 척수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척수가 이어지고 있다. 위로는 대뇌, 뒤로는 소뇌, 아래로는 척수와 연결되어진 뇌간이라는 구조물에는 여러쌍의 뇌신경이 나오는데 가운데 가장 큰 신경 중 하나가 바로 삼차신경이다.

이 삼차신경의 신경 다발에 포함되어 있는 자율신경의 이상에 의해 매우 독특한 증상들이 두통과 함께 나타나는 점이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

지게 되었다. 최근 국제 두통 학회에선 위에 열거한 특이한 이름의 두통 증후군을 통틀어 ‘삼차신경 자율신경성 두통’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지속성 반두통’이나, ‘SUNCT’는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두통이라고 할 수 있다. 만성 편두통을 위시하여 일반적인 진통제로 다스리기 쉽지 않은 두통의 대부분은 다름 아닌 새로운 개념의 ‘뇌질환’이라는 셈이다.

‘삼차신경 자율신경성 두통(TACs)’과 같은 질병 및 이와 유사한 두통 증후군은 특징적으로 치료에 매우 반응을 잘하여, 치료의 시작과 더불어 극적으로 호전되므로,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한 두통들 가운데 하나다. >상당 문의 :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건강 칼럼

호스피스의 역사

프랑스 작가 시몬 드 보부아르가 1964년 쓴 ‘죽음의 춤’이라는 책은 암에 걸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에 관한 내용이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은 잘 수용해도 폭력’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죽음이 오기 전에 올 고통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사망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말기암으로 인한 것이 가장 흔한 일이다. 암세포가 몸속에서 간이나 뇌와 같은 장기로 퍼지고, 이로 인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기암 환자는 현대의학의 치료로도 완치가 될 수 없다. 사망에 이를 때까지 수 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통증 등 고통을 받는다.

그동안 미국의 의학의 흐름은 치료중심의 의학이었다. 인간의 수명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치료중심 의학의 한계는 베이비부머들은 퇴로 급격한 수요 증가, 치솟는 약값과 병원비 등 의료비용 증가로 나타났다. 사회가 더는 부담할 수 없음과 동시에 치료중심 의학이 가져오는 치명적 한계인 ‘삶의 질’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의 고민이 깊어져 왔다.

예를 들면 항암치료제의 발달은 만성백혈병이나 특정폐암과 같은 암치료를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지만, 항암치료 부작용에 따른 고통과 비용은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말기 암도 암으로 3개월째 투병중인 78세 김모씨는 수술 후 지속되는 통증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몹시 힘들었다. 수술 후 처음에는 항암치료도 받고 의욕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에 열심이었지만, 진통이 심해지면서 주치의로부터 더는 호전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계속되는 통증에 몰린 주사를 맞았지만, 몇 시간 후 다시오는 진통에 힘들어했다. 이를 전부터는 식욕이 없어졌고, 모르핀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구토증세도 있었다.



이영직 원장 LA 이영직 내과

결국 그는 가족과 함께 의사로부터 완치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과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호스피스(hospice)’는 원래 중세 유럽에서 순례자에게 숙박을 제공했던 작은 교회를 의미했던 말이었다. 여행 중에 병을 얻어서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곳에서 계속 치료 및 간호를 받았다. 이런 연유로 해당 시설을 호스피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병원(hospital)도 호스피스와 마찬가지로 고아원, 양로원 등 갈 곳 없는 사람을 교회시설에서 수용하고 치료 기능을 추가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병원이 되었다.

현대적 개념의 호스피스 시조는 시슬리 순더스(Cicely Saunders)라는 영국의 간호사다. 그는 환자를 돌보던 중 말기 암환자를 정성껏 돌보면 환자들의 공포와 걱정뿐 아니라 신체적 증상이 완화된 것을 보고 지속적인 현대 호스피스에 관한 체계를 만들었다. 본인도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1957년의사가 되었다. 1967년에는 최초의 호스피스 시설인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를 설립했다.

호스피스 대상은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면, 환자와 가족 동의 아래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다. 집이나 양로병원에서 통증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임종시까지 치료를 받도록 한다. 또한 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상담에도 호스피스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방 칼럼

여성 갱년기 증후군

모든 여성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초경이 시작되듯, 40대 중후반이 되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결핍으로 난소의 난자 생성이 중단되면서 서서히 폐경이 시작된다. 이런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갱년기’라고 한다. 40대 중후반부터 짧게는 4~5년, 길게는 7~10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최근 폐경기 시기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다.

갱년기 대표적인 증상은 안면홍조와 발한이다. 우울증, 기억력 장애, 정서불안, 수면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생기면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의욕 상실도 생길 수 있다. 요실금과 같이 소변을 자주 보는가 하면, 폐노통, 급노, 심한경우방광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피부 건조, 근육통, 관절통, 골다공증이 급속도로 진행되기도 한다.

갱년기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는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 기존의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져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급상승해서다. 반면,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골아세포의 활동이 따라가지 못해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발생한다.

한방에서는 갱년기를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몸 안의 수분과 혈액이 부족하게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노화 현상으로 본다. 몸의 수분이 떨어지면서 상반신으로 열이 몰려 안면홍조와 머리부분의 땀이 심해지고, 하반신으로 상대적으로 차가워지는 몸의 불균형으로 인해 신진대사가 급속도로 떨어진다.

수분 부족으로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정서불안과 불면 등이 나타나면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피부의 탄력이 줄고 주름이 생기는 등 노화가 급속도로 촉진된다. 혈액 부족은 근육 수축과 관절과 뼈를 약하게 만든다.

갱년기 한방 치료는 부족한 혈액과 혈액을 보충하여 음양의 밸런스를 맞추고, 전신의 기운을 북돋아 정신적, 육체적 균형을 찾아 폐경 이후에



박언정 원장 LA 해성한방병원

나타나는 급격한 노화의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도록 한다.

갱년기는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이므로 가족들이 환자의 증상을 이해하고,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시기다. 근골격이 약해지는 만큼 유산소 운동과 적당한 근력 운동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갱년기 추천 운동 첫째,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다. 운동은 적어도 약간 숨이 찰 정도, 땀이 조금씩 날 정도로 한다. 시간은 10~15분 정도로 시작해 5분씩, 매일 40~50분 정도로 늘려도 좋다. 둘째, 뼈와 근육이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근력 운동도 아주 중요하다. 적당한 무게의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생활화한다.

▶갱년기 생활 수칙 1. 금연, 금주, 탄산음료와 가공식품 피하기. 2. 칼슘 공급을 위한 멸치, 밴어포 등 뼈째 먹는 생선. 3. 식물 단백질인 콩이나 두부 먹기. 4. 충분한 햇볕 쬐기 및 수면. 5. 요가와 명상.

▶갱년기에 좋은 한방차 1.하수오차: 프로게스테론 성분이 우울증, 불면증과 신경 쇠약을 완화하고 마음 안정을 준다. 2.오가피차, 우슬차: 뼈, 근육, 인대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3.연근차: 연근에는 철분과 비타민 B가 다량 들어 있어서 혈액 생성을 용이하게 만들고, 어혈을 풀어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s)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투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de, MD 21075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출전도, 관람도 어렵다...골프계의 버킨 백 '마스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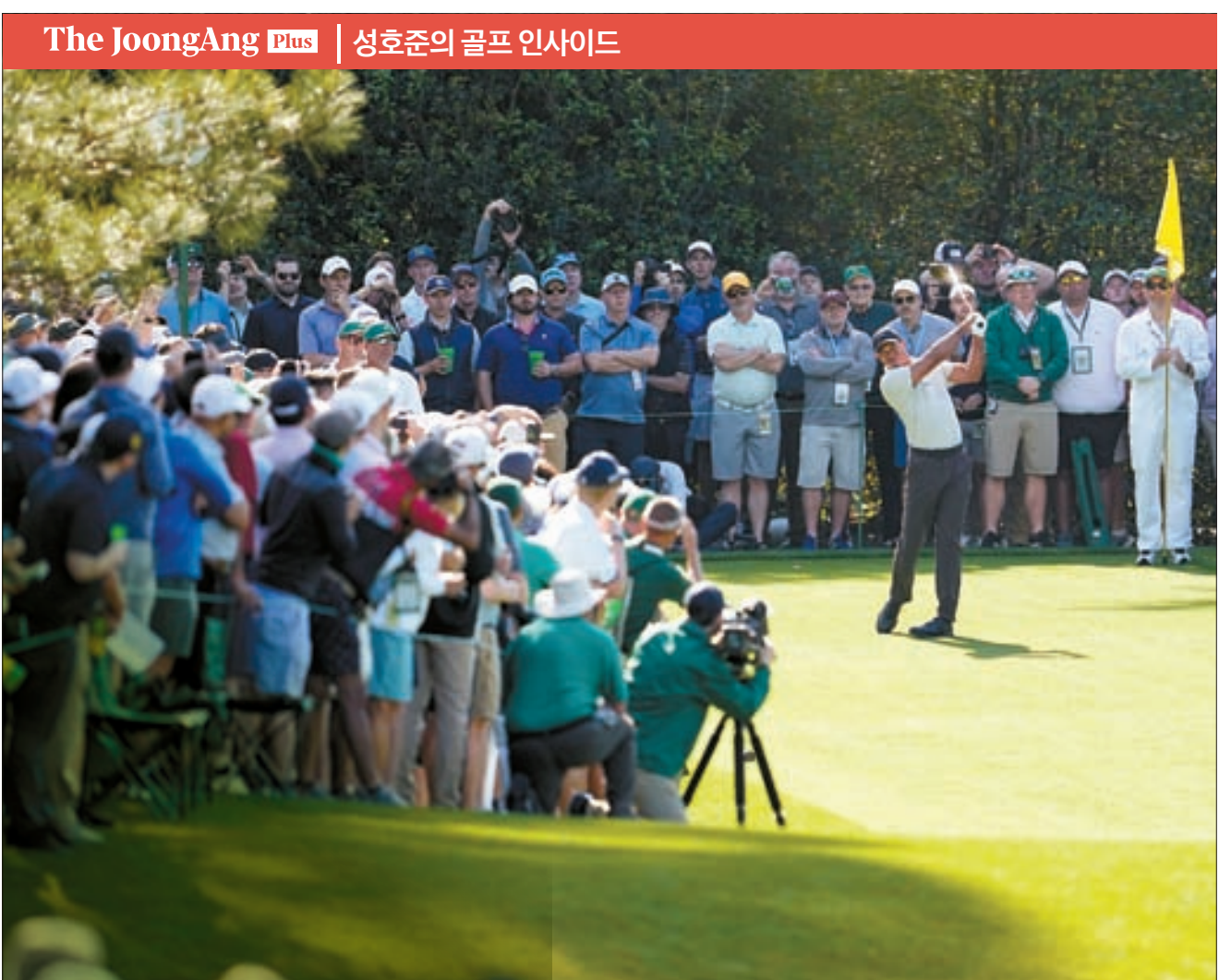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 내일 개막 오거스타 내셔널, 폐쇄적 운영 유명 주최 측 초청 없이는 대회 참가 못해 입장권, 수퍼보울만큼 구입 어려워 올해 우즈 등 총 89명 선수 출사표

최고 권위의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11일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개막한다. 올해 대회에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속 71명, 사우디아라비아의 LIV 골프 소속 13명, 아마추어 골퍼 5명 등 총 89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건 가방이 아니라 버킨이라고요.”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에르메스의 매장 직원이 명품 가방 버킨 백을 찾는 주인공 사만다에게 “5년은 기다려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이건 골프 대회가 아니라 마스터스라고요.” 8일 연습라운드 하루 티켓 2400달러를 부른 압표상에게 “왜 이리 비싸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진지한 골퍼의 버킷리스트에는 골프의 성지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 라운드와 더불어 마스터스 대회 관람이 담겨 있다. 올드 코스에선 직접 치는 게 꿈인데, 마스터스는 구경만 해도 좋다는 거다.

선수들은 마스터스를 버킨 백으로 여기는 듯하다. 세계 1위를 다투던 존 램이 지난해 사우디가 후원하는 LIV 골프로 옮긴 것도 마스터스 우승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스터스는 우승자에게 평생 출전권을



The JoongAng Plus | 성호준의 골프 인사이트
마스터스 개막을 앞둔 9일 오거스타 내셔널에서 연습 라운드를 하는 타이거 우즈. 수많은 팬트론(갤러리)이 그를 지켜봤다. [AP=연합뉴스]

8일 월	연습라운드	1330
9일 화	연습라운드	1737
10일 수	연습라운드	2129
11일 목	1라운드	1929
12일 금	2라운드	1966
13일 토	3라운드	1648
14일 일	4라운드	1648

자료: 2일 stubhub 등 미국 티켓리세일 사이트
준다. 버킨 백을 가졌으니 다른 가방(PGA 투어의 다른 대회)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을 것이다. 버킨 백은

돈이 있다고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마스터스 입장권은 스포츠에서 가장 귀한 티켓이다. 수퍼보울 입장권보다 구하기 어렵고, 압표 값도 비싸다.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은 꽃 목욕장 부지에 들어섰다. 각종 꽃이 많은데 대회에 맞춰 피는 30여종의 철쭉이 하이라이트다. 페어웨이는 웅단 같고, 그린은 비단 같다. 과거엔 개울에 푸른색 물감도 풀었다고 한다.

버킨 백은 가수 겸 배우 제인 버킨이 비행기 여행 중 가방에서 물건이 쏟아져 나온 게 만든 계기가 됐다. 옆에 앉았던 에르메스의 경영자가 백을 만들어 준 것이다. 마스터스 창립 신화에는 ‘골프의 성인’ 보비 존스가 주인공이다. 그랜드슬램 달성 후 뉴욕에서 카퍼레이드를 할 정도로 인기 스타였던 존스는 친구들과 조용히 골프를 즐길 곳을 찾다

애틀랜타 인근 오거스타에 골프장을 지었다.

에르메스는 브랜드 앰배서더를 쓰지 않는다. 스타들이 자발적으로 버킨 백의 명성을 키웠다. 데이비드 베컴의 부인이자 전 스파이스 걸스의 멤버인 빅토리아 베컴은 버킨 백 100개, 모델 겸 배우인 킴 카다시안은 30개 넘게 가지고 있다.

마스터스는 슈퍼스타들이 유난히 많이 우승한다. 잭 니클라우스(6회 우승), 타이거 우즈(5회), 아널드 파머(4회) 등 최고 스타들이 가장 많이 우승한 메이저 대회가 마스터스다. 필 미켈슨, 닉 팔도, 샘 스니드, 게리 플레이어는 3번, 벤 호건과 바이런 넬슨도 두 차례씩 우승컵에 이름을 새겼다.

버킨 백은 아무한테나 팔지 않는다. 매장에 전시도 하지 않는다. 에르메스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벽을 만들어 사람들을 애태게 만든다. 아무나 가지 못하는 걸 갖고 싶어하는 인간 심리를 마케팅에 이용하는 브랜드다.

오거스타 내셔널은 클럽 회원이 누구인지 비밀이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클럽 회장의 기자회견을 제외하면 아무도 클럽 내부의 일이나 마스터스에 관해 말할 수 없다.

디오펜과 US오픈은 누구나 실력만 되면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마스터스는 주최 측이 초청해야 참가가 가능한 대회다. 선수들이 가장 나가기가 어려운 대회가 마스터스다.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나가고 싶어하는 대회가 마스터스다.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갖고 싶은 버킨 백처럼, 마스터스는 단아둠으로써 신비함과 화려함을 얻었다.

주춤했던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의 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오타니는 8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나와 5타수 3안타 1홈런 1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3-2로 앞선 7회 초 큼지막한 솔로홈런을 터뜨려 4-2 승리를 이끌었다. 최근 5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타율을 0.345(55타수 19안타)로 끌어올렸다.

오타니의 출발은 좋지 않았다. 6년간 함께한 통역 미즈하라 잇페이(27)가 불법 스포츠 도박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눈

오타니, 4월만 벌써 홈런 3개... 김하성은 2타점 3루타 활약

오타니, 미네소타전 홈런 등 3안타 최근 6경기 타율 0.440, 부진 탈출 이정후, 워싱턴 상대 3타수 2안타



미네소타전에서 올 시즌 3호 홈런을 터뜨린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AFP=연합뉴스]

란의 주인공이 됐다. 이 여파로 초반 8경기 36타석에서 홈런을 1개도 터뜨리지 못하며 주춤했다.

그러나 오타니는 4월 들어 전혀 다른 선수가 됐다. 이달 6경기에서 타율 0.440(25타수 11안타) 5타점 7득점의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특히 3월에는 없던 홈런이 4월엔 3방이나 터진 점이 고무적이다.

이날 미네소타전에서도 오타니의 타격 감각이 빛났다. 오타니는 1회 첫 번째 타석에서 상대 선발투수 베일리 오

버의 공을 받아쳐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기록했다. 6회에는 감각적인 밀어치기로 왼쪽 파울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2루타를 추가했다. 하이라이트는 7회였다. 3-2로 다저스가 근소하게 앞선 상황에서 췌기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제이 잭슨의 시속 138km짜리 슬라이더를 힘으로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넘겼다. 올 시즌 처음으로 3안타를 기록한 오타니는 “아내와 동료들이 있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외야수

이정후는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 경기에서 1번 중견수로 나와 3타수 2안타 1득점으로 활약했다. 1회 안타를 치고 나간 뒤 후속타 때 홈을 밟았고, 3회에는 좌익수 방면으로 2루타를 추가했다. 이정후가 유일하게 득점을 올린 샌프란시스코는 1-8로 졌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격수 김하성은 시카고 컵스전에서 4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2-8로 뒤진 6회 무사 1, 3루에서 2타점 3루타를 때려냈다. 4회까지 0-8로 밀리던 샌디에이고는 6회 7점, 8회 2점을 뽑아 9-8로 역전승을 거뒀다. **고봉준 기자**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진료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 의사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난 남자야” 쏘대 중의 쏘대, 그가 그리는 절대 고독

요즘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일본 드라마 ‘부적절한 것에도 정도가 있다’가 화제다. 지극히 현실적인 일상에서 판타지를 발견하는 천재 이야기꾼 쿠도 칸쿠로 특유의 세계관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1986년에서 느닷없이 2024년으로 타임슬립한 50대 아재 오가와와 좌충우돌에 배꼽 잡다가도 그사이 천지개벽한 가치관의 변화를 새삼 생각하게 되는 드라마다.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자 동료에게 성차별적 농을 걸며 학생들을 체벌하는 세상에 살던 오가와로선 후배에게 격려 한 마디 했다가 고발당하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지만, 2024년의 눈으로는 오가와와 일거수일투족이 ‘부적절’의 극치다. 38년을 사이에 둔 가치관의 충돌이 일본에서도 반향이 크다고 한다.

배우 이남희 8년여만의 무대 복귀작

지금 우리 눈에 ‘부적절’의 정도를 넘어선 또 한 남자가 있다. “난 남자야.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난 언제라도 다른 여자로 바꿀 수 있어.” (“자기 아들을 두고) 난 그 엘 잘 몰라. 당신이 키웠지. 그 애 엄마인 당신이 한 일이 그거지.” “난 이 나라 권력의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싶었어. 땅, 산, 숲, 바다. 그 모든 원천을 다 가지고 싶었어.” 대략 이런 대사를 입에 달고 사는 ‘쏘대 중의 쏘대’, 윤 가브리엘 보르크만이다.

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의 올 시즌을 여는 서울시극단의 첫 작품 ‘윤’의 주인공이다. 수공업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이행하던 19세기말 성공한 은행가였지만, 불미스런 사건에 휘말

려 은행 파산의 책임을 지고 16년간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 현대인의 눈에 부적절할 뿐 아니라 당대의 변화도 적응하지 못해 가족·친구와도 충돌한다. 각색·연출을 맡은 고선웅 예술감독이 8년여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이남희 배우를 캐스팅해 손수 직조해낸 캐리커다.

‘윤’은 ‘현대극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만년(晩年) 걸작이다. 1897년 발표되자마자 유럽 각지에서 았다튀 무대화했고, 지금도 전세계에서 꾸준히 공연되고 있다. 페미니즘 연극의 효시 ‘인형의 집’으로 유명한 입센은 ‘사회문제극’의 창시자이자 전통적인 관념에 도전한 점을 높이 평가받으며 전세계에서 세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공연되는 작가다. 하지만 세계적 위상에 비해 한국에선 보기 힘들었는데, 2년 전 연극평론가 김미혜 한양대 명예교수가 국내 최초로 입센 전집을 번역해 접근이 한 걸 수월해졌다. 김 교수는 그 공로로 지난해 노르웨이 왕실이 주는 훈장을 받기도 했다.



1 노르웨이의 눈보라치는 산꼭대기를 장엄한 미장센으로 표현한 서울시극단 ‘윤’. 2 전통적 관념 때문에 빚어지는 부적절한 상황을 고선웅식 유머로 풀어냈다. [사진 세종문화회관]

김 교수에 의하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주며 관객의 감성을 건드리는 체습에 비해 입센은 도전 의식과 질문을 던짐으로써 관객을 불편하게 한다. 그런 이유로 그간 한국에서 푸대접을 받아왔다”는데, 서울시극단의 ‘윤’은 ‘입선웅(입센+고선웅)의 탄생’이라고 할 만큼 독특한 해석이라 흥미롭다. 비극조차 유머러스하고 리드미컬하게 풀어내는 ‘고선웅 스타일’과 입센이 제대로 만나 불편함보다 골계

미가 넘치는 무대가 된 것이다. 16년간 과거의 영광만 되새김질하고 있는 윤, 가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아들 엘하르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윤의 아내 귀닐, 윤의 옛 연인이자 귀닐의 쌍둥이 언니로 실패한 사랑을 조카에게 투영하는 엘라의 막장 드라마 삼각구도로 시작해 사각, 오각 구도로 발전해 가는데, 시종 ‘부적절’해 보이는 부조리한 상황의 열전이 마치 개그 콘텐츠 ‘쏘대’를 보듯 웃음보를 뺏뺏 터뜨려준다.

몽크, 연극에 매료돼 ‘밤의 방랑자’ 그려

셋은 이미 지나간 시대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미련범벅의 구세대다. 이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돌아올처럼 매달리는 청년 엘하르트는 이들을 구원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엘하르트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엘하르트는 벗어나려 하고, 재산도 직업도 포기한 채 행복을 찾겠다며 9살 연상 이혼녀와 떠난다. 구시대적 희망으로 양육한 MZ 자녀에게 배신당한 쏘대들의 쓸쓸한 초상이랄까. 고선웅 연출이 ‘눈보라치는 고독 속에서’라는 부제를 붙인 것처럼, 흔히 ‘윤’은 인간의 절대고독에 관한 이야기로 풀이된다. 내면의 고독을 화폭에 토해냈던 노르웨이의 표현주의 화가 에드바르트 몽크도 그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세계관에 매료되어 ‘병든 늑대’와 같다고 묘사된 윤과 자신을 동일시한 자화상 ‘밤의 방랑자’를 그렸는데, 그 사무치는 고독의 마력이 아이러니하다.

송고미를 극대화한 엔딩은 명품 반열에 오른 고선웅의 대표작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을 연상시킨다. 역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였던 ‘조씨고아’의 정영이 20년간 칼을 간 복수를 이룬 뒤의 허무를 장엄하게 연출했다면, 윤도 16년 만에 과거의 굴레를 털어냈을 때 비로소 송고해진다.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를 해금시키고 세상에 나와 엄청난 눈폭탄을 맞는 4막의 충격적인 미장센과 배우 이남희의 열정적인 연기가 연극만이 줄 수 있는 감동을 운반하는 듯하다.

드라마 ‘부적절한 것에도 정도가 있다’는 80년대 ‘쏘대’였던 오가와가 2024년에 다녀온 뒤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천하며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갈 것이라는 암시로 끝난다. ‘쏘대의 부적절’을 비난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제안이 딱 인간적인데, 부적절의 극치 ‘윤’의 메시지도 다르지 않다.

고선웅 연출은 “눈보라 치는 산꼭대기에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윤의 처지가 이 시대를 사는 시지프스처럼 보여 잘 연출해보고 싶었다”면서 “더 오를 곳이 없는데도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지름길로 바쁘게 가다 보니 주위도 못 살피게 되지만,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고 남의 삶도 헤아리지 않으면 인생이 고독하고 막막해진다는 이야기를 입센이 하고 있다. 서로 매너를 지켜가면서 너무 싸우지 말고 분란 없이 살다 가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유주현 기자

20대 초입의 청년들도 부러워 할 만큼 중장년층 여성과 남성들에게 세상사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는 성인전용 상품
 LC Plaza, P.O. Box 2831, Garden Grove, CA 92842. 전세계 어디서나 1-213-210-9720 (상담 및 주문), 인터넷 주소: www.yyykkk.com
 (지불 방법 : 무통장 은행입금 (Bank of America에 직접 입금), 체크 또는 머니오더 송금, 현금 구매, 모든 Credit 카드, Debit 카드, Check 카드)

남성들의 원기회복과 정력 보강에 특효로 알려진 한방 보약재와 천연 생약재 발효 성분으로 구성된 무결점 부작용 천연 비아그라는, 미국 파이저사의 비아그라를 복용했을 때, 케미컬 성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가 전혀 없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으로서, 지난 26년간 이어져온 꾸준한 판매실적과, 고객들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100%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70~80대 남성도 20대 초입의 건강한 청년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5캡슐 1병 & 20캡슐 1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 ▶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발기가 잘 안되는 경우
- ▶ 강직도가 충분치 못하거나 일찍 풀리는 경우
- ▶ 비아그라를 먹어도 전혀 효과 없는 분께 특효
- ▶ 내성이 전혀 없는 자연 치유력 증진 효과 보장
- ▶ 여성이 너무 좋아하는 최고 강직도와 지속성

여자가 생각날 때 1캡슐만 복용하면 1시간 경과 후에 여성의 엉덩이나 가슴을 쳐다만 봐도 아랫도리가 분기팽창하는 강력한 남성기 발기력 개선 효과가 1주일 가량 지속되게 해주는 보약.

#백인 여성과 일본 여성들의 성생활 동영상 DVD
 #혼자여도 전혀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게 해주고, 혼자여도 되려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싱글 남녀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자위용품.

#69 전문가가 권장하는 남녀공용 사랑의 윤활유 『우먼센스 오르가즘 젤™』 \$58 (100회회 사용)
 끈적임과 자극성 냄새와 색깔 맛이 전혀 없는 무색무취 무자극성 제품입니다. 남녀 모두 상대방 모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여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액액과 흡사한 달달하고 감미로운 황홀한 질 환경을 제공해주며, 삽입하기 전에 서너 방울 바르고 하면 관계가 끝날 때까지 촉촉하게 미끈거리는 아들아들하고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감촉을 제공하는 윤활 작용과 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여성의 성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주며 평소보다 남성의 성욕이 왕성해지고 발기력이 월등하게 강해지며 여성기의 세균 감염을 방지해주는 위생 작용과 질에서 풍기는 콧냄새까지 청결하게 없애주는 기능성 윤활제 제품입니다.

61 향기로 후각을 자극하여 충동적으로 성욕을 느끼게 해주는 남녀공용 성욕 자극제 향수, 부부와 연인들의 황홀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만들어 주는 남녀공용 성생활 개선제 최음제 향수, 향기를 맡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뜨겁고 황홀한 욕정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달달한 매혹의 향기 최음제 향수 \$45 (90회 사용)
 자신의 신체 부위에 일반 향수처럼 1~2차례 뿌리고만 있으면 처음보는 이성이라도 나에게 호감과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가장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G-Spot을 발달시켜주고, 단련시켜주는 천연 옥질 속에 넣고만 있으면 여성 불감증과 오르가즘 장애 4주 만에 완성, 질 괄약근 수축운동과 여성 요실금 자가치료 \$75

10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끼우고만 있으면 절대로 시들지 않는 남성기 발기력 강화제 O 링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밀착시켜 끼우면 빼내기 전에는 절대로 시들지 않는 견고한 강직도 지속 효과와, 터질듯이 부풀어오르는 우람한 사이즈 확대효과, 도통한 링 테두리 부위가 여성생식기를 미칠 만큼 즐겁게 비벼주고 문질러주는 지압 마사지 효과의 O 링

1시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가량 지속효과, 100%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자양강장제 개념의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一石九鳥(일석구조)의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남성 생식기능 개선제품



- 5캡슐 1병 & 20캡슐 1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 ① 신장과 간 기능 건강에 100% 확실한 효과 보장
 - ② 늘상 피곤한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한 방에 퇴치
 - ③ 만성 전립선비대증 근본 원인 치료 효과 보장
 - ④ 70~80대 남성들도 규칙적이고 활기찬 성생활
 - ⑤ 점점 양이 줄고 메달라가는 남성 호르몬 보충제
 - ⑥ 막힌 혈관 청소와 고혈압 개선 근본 원인 치료제
 - ⑦ 우람한 남성기 확대 효과와, 견고한 강직도 보장
 - ⑧ 먹기만 하면 커지는 남성기 성장 발육 확대 효과
 - ⑨ 남성 발기부전과 조루증에 확실한 효과 보장

당뇨병 환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며, 70~80대 남성도 나이와 무관하게 생각 날 때마다 발기력을 쩡쩡하게 만들어주는 즉효성 남성 발기제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1시간 전에 1캡슐만 복용하면 1주일 가량 지속되는 넘치는 정력에 보약효과 만점의 즉효성 남성기 발기제

#12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멧돼지 남성들의 성생활 필수품 오리지널 천연 낙타 속눈썹 링 (세척을 통해 만 영구적으로 사용)
 말총처럼 까실까실한 환상적인 감촉과 실크 원단처럼 하늘거리는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촉감이 실신했 만큼 감미롭고 달달하게 여성기 속살을 구석구석 섬세하게 쓸어주는 전설적인 성생활용품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부모**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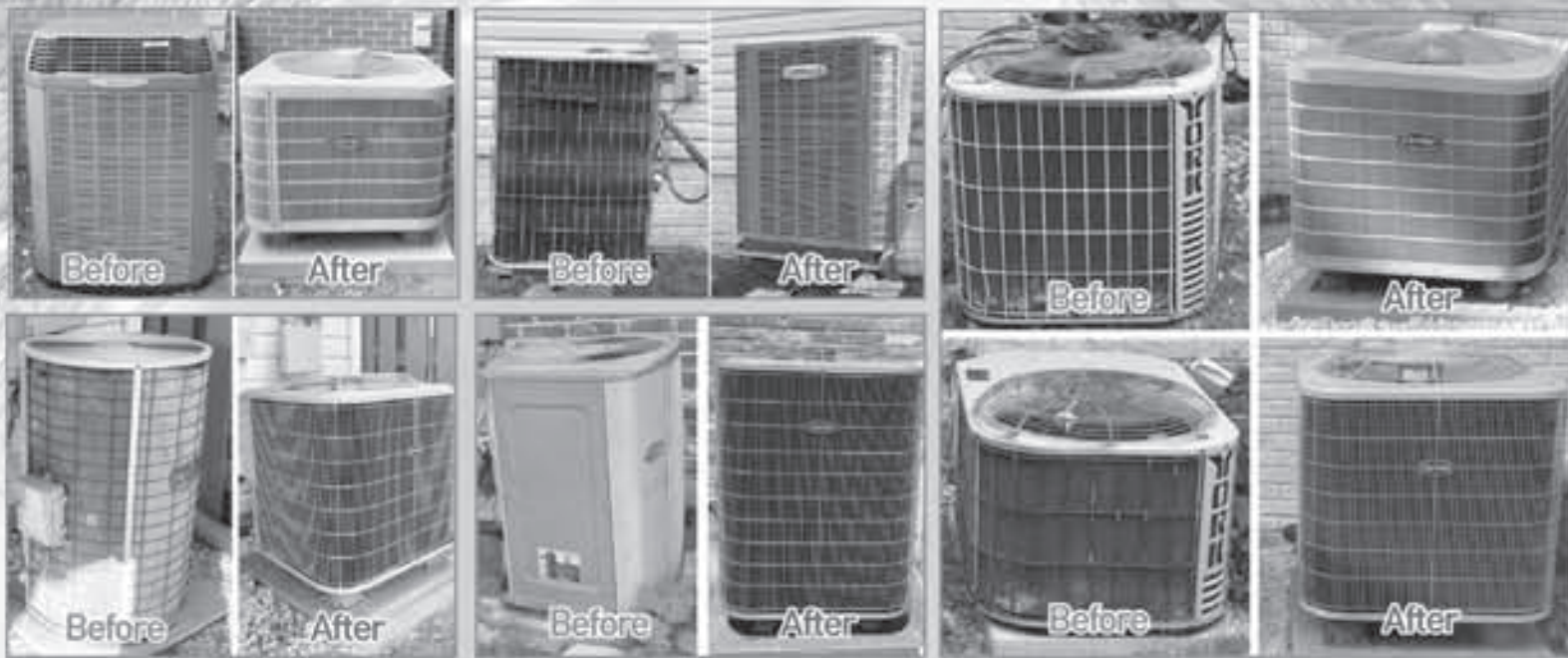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4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우수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문의: 571-348-3723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_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물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 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 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서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x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 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2) 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240-477-568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 301-333-2209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사시 & fried
chicken / 파트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301-926-3638 / 301-538-424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애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니스트 (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룬 렌트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세탁/얼터레이션>

픽업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엇시티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트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 루트원 선상
703-501-3335

생활안내 광고 게재요청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중앙일보**

카운터보면서 바느질하실분
파타임, 폴타임, 엘리트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트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착상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카펜터 (캐비닛, 코리아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구인/구직>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 · 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행사 진행하실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라더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파/풀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시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분, 성실한분
213- 839-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매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가능자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첸틀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밭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애난데일 홈디오 옆 위치,
넓고 밝은 3 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텍,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3 층, 방4+ 화장실 3.5.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월\$3,800
방5, 화4, 차고, 2 리버힐 학교
410-599-1800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잔디 관리, 전체마루.
703-403-7757

매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 전
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
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밭고 환한
집. 880s.f.(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 1개 렌트
▶703-470-5238

매나사스 H-mart 근처 타운홈 방 렌트
walkout 1층 전체, 밭고 깨끗한 큰방,
주방(간단한 취사), 욕실, 세탁실, 주차편리,
별도 출입문, 인터넷, 유포, 비흡연자
703-400-4520

애난데일 방1개, 부엌, 리빙룸, 샤워
유포, 인터넷, 세탁기(\$1,300)
703-618-6634

MD Silver Spring 한야름 10분거리
조용한 단독주택 2층. 넓은 마스터 베드룸
쓰실분. 가우라비, 인터넷,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애난데일 한강 근처 타운홈 방 세놓음
전화: 571-699-9707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Fairfax VA, 방1칸,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
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우라비/냉장고
별도/ 주차/샤워별도, 남자분 / 금연자
29번과 198번 사이 매릴랜드 버트스빌
240-413-2738

MD 렌함지역 조용하며 교통 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 렌트 (방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환영.
703-336-3283

노스 포트맥, NIST 근처 싱글홈 반 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 포함
301-520-2916

센터빌 H-마트, 하이스쿨 각 5분 거리
방 세놓음, 여자분 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1, 샤워실, 출입문, 간단취사
주차 편리, 즉시 입주. 금연자
571-243-6295

DC 출퇴근 매우 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mr. 권)

애난데일 한 공간에 방, 욕실, 키친이 꾸며져
있고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구비
571-232-6052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 별도.
금연자, 그랜마트 6분 롯데 11분, 오래게살분
702-622-8853

애난데일 H-mart 옆 방 1 세놓음
인터넷, 가우라비, 취사가능,
직장 다니는 남자 환영. 즉시 입주 가능.
703-975-0123

MD 렌함지역 조용하며 교통 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 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H-mart 뒤 콘도.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방 하나 렌트. 주차장 충분, 출입문 따로.
571-237-3411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 렌트
욕실 가우라비 \$800 여 학생 직장인
703- 981-7615 (문자)

알렉산드리아 킹스타운 콘도 렌트 \$750
방 1, 취사 세탁 가능, 남자분 환영
703-403-7757

애난데일 한강 식당 뒤 타운하우스,
지하철까지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비즈니스 커머셜 리스팅

▶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샵핑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 개발 중인 진입로에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근교 (I-66 Exit 47) 싱글 주택 추천

*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샵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단층 주택으로 1층에 방3, 화2


\$550,000
방 3, 화 2.5, 차고 2


\$530,000
방 3, 화 2, 차고 2
1900스퀘어, 0.36 에이커


\$590,000
방 3, 화 2,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 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경우 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C15

애난데일 지하실방1, 화장실1
703-887-5173

애난데일 K마트 뒤싱글 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넉넉
703-965-2343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4, 화 4, 편리한 렐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립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컬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571-421-086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 \$9,500/렌트 : \$3,750
All(6일근무)부부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 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토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기타

치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C
·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 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세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깃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 매매》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 / 8,000 / 10,000 / 12,000 (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첼틀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모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피아노(Everett) Free로 드립니다.
필요한분 문자주세요.
Tel.571-668-0805

허리 운동하는 꺼꾸리 싸게 팝니다
사용설명서 있음 \$50
240-477-3232

골프채 판매
- 드라이버 9.5도 315cc
- 아연 닉센트 4-9 S P번까지 8개
- 단랍 (스페인제) 3-9 P S 7개
- 요넥스 6-9 P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쇼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팝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덕,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 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인터텍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벨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렉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풀 청소. 응급 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밀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적,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는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퍼어, 핸드맨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징,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입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올라리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
HomeAdvisor
Trustmark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타주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해외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시내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리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리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질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캐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Jim: So how was the class party yesterday?
 짐: 어제 학급 파티 어땠어?
 Roger: It was great. Everyone had a blast.
 로저: 재미있었어. 전부 신나게 놀았어.
 Jim: So they all enjoyed themselves?
 짐: 그래 전부 재미있었다고?
 (David walks in the office.)
 (데이비드 사무실로 들어온다.)
 Roger: Yes they did.
 로저: 응 그랬지.

David: Who enjoyed themselves?
 데이비드: 누가 참석한 거야?
 Roger: I put together a pot luck party with classes 1
 2 and 3 in the student lounge yesterday.
 로저: 어제 1반과 2반 3반 모두 각자 음식을 가져
 오도록 해 학생 라운지에서 파티를 열었어.
 David: Really?
 데이비드: 정말?
 Roger: Yes. I realized I had students from seven
 different countries.

로저: 그래, 알고 보니 학생들의 출신국이 7개국
 이나 되더라고.

David: So students brought food from their own
 countries?

데이비드: 그럼 학생들이 각자 자기 나라 음식을
 가져왔겠네?

기억할만한 표현

▶ put together (something): (also put something
 together) 주선하다. (자리를) 마련하다.

have a blast: 신나게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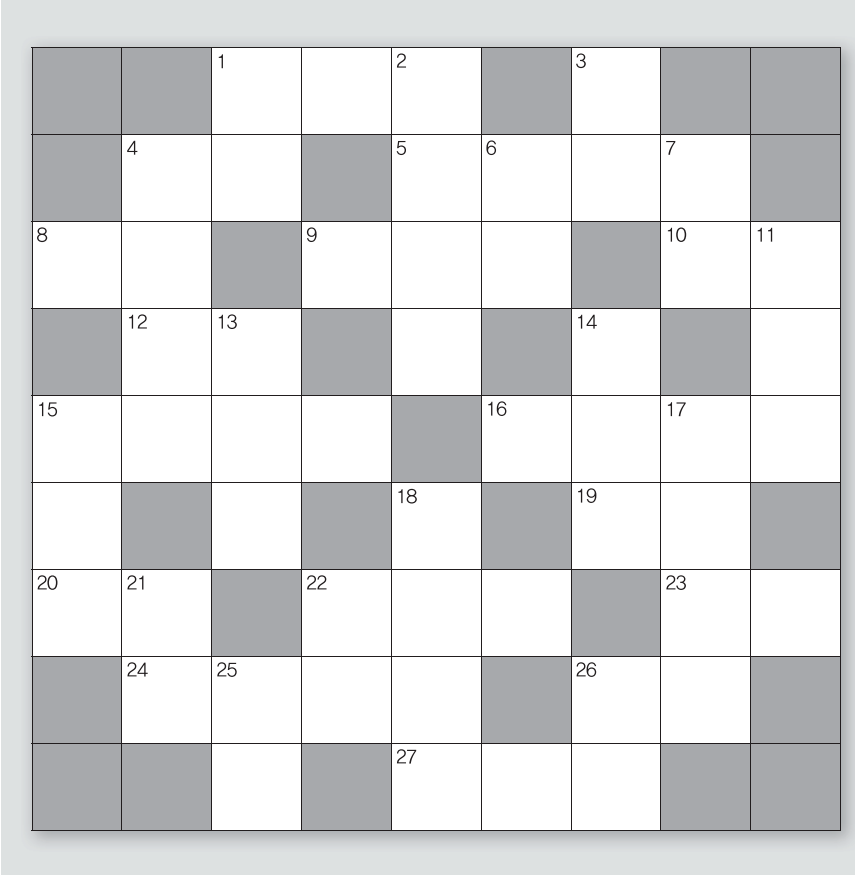
(Jim is talking to Roger at work when David joins the conversation...)
 (직장에서 짐과 로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이비드가 대화에 킨다...)

"I want to put a meeting together with all the
 department managers."
 (모든 부서의 매니저들이 참석하는 모임을 마련하고 싶
 습니다.)

▶ potluck: 각자 음식을 가져오는 파티.
 "We had a potluck lunch yesterday."
 (어제는 각자 음식을 가져와 파티를 열었습니다.)

▶ just before: 바로 전.
 "I got home just before 11:00 pm last night."
 (어젯밤 11시 되기 바로 전에 집에 왔습니다.)

낱말퀴즈



가로열쇠

(1)돼지 갈비를 떼어낸 부분에서 북부까지의 넓
 고 납작한 모양의 부위로 붉은 살코기와 지방이
 세 겹의 막을 형성하고 있다 (4)어민들이 모여 사
 는 바닷가 마을 (5)내가 부를 노래(가)를 사돈이
 부름. 자기가 할 말을 상대방에서 먼저 함 (8)답
 배 또는 부시를 담은 주머니. 주머니돈이 ~ 돈
 (9)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란 말. 성질이
 활발하고 거친 사람 (10)두 편으로 갈라서 상대
 편을 맞히는 공놀이. 도지볼 (12)부모가 낳은 아
 이. ~ 이기는 부모 없다 (15)젓먹이가 왼손 손바
 닥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댔다 뻗다 하는 동작.
 아이는 돌이 지나자 제법 사람들도 알아보고 ~하
 며 재롱도 부렸다 (16)지구가 한랭화되어 넓은 지
 역이 얼음으로 덮인 시기 (19)몸짓과 손짓에 의
 한 의사 전달 방법. 수화 (20)마음속에 지니고 있
 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 (22)담배를 즐겨
 피우는 사람 (23)부엌 천장 위에 이층처럼 만든
 곳 (24)위엄이나 지위 따위에 놀리어 두려워서 몸
 둘 데가 없음 (26)무덤 속에서 나온 뼈 (27)다른
 생물에 붙어살아가는 벌레. 일천만 관객의 영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이기도 하죠

세로열쇠

(1)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 (2)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3)왕명으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방
 에 파견되던 임시 벼슬 (4)제기차기에서 두 발로
 번갈아 차는 일 (6)크고 우묵하게 생긴 술 (7)체
 면이 깎이는 일이나 아니꼬운 일을 당함 (11)물
 위에 쉽게 뜰 수 있도록 조끼처럼 입는 것 (13)
 음식을 먹은 뒤에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는
 증상 (14)땅 속에 있는 물 (15)임금이 입던 정
 복. 누런빛이나 붉은빛의 비단으로 지었으며, 가
 슴과 등과 어깨에 용의 무늬를 수놓았다 (17)맛
 이 좋은 준치에 가시가 많음. 좋은 면의 한편에
 는 좋지 못한 면이 있음 (18)하늘과 땅 사이에 가
 득 잔 넓고 큰 원기. 거짐없이 넓고 큰 기계. 신
 라 시대의 화랑들은 산과 들을 누비며 ~를 키웠
 다. 호로호로 (21)오래 굶주려서 살기죽이 얽혀
 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흉년이 들어 ~ 나고 의
 지할 곳 없는 백성들이 늘어갔다 (22)이성을 사
 랑하여 어루만짐 (25)중생대 쥐라기와 백악기에
 걸쳐 번성하였던 거대한 파충류. 1억 650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고, 6500만 년 전에 멸종
 지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26)애벌레

스도쿠

8								9
7					8	6		2
5	6		2		9	8		
			8	5	2	1	3	
2		1	6		4	5	9	
4			9	1		2		6
1	9		4					
	5			9	3	4	2	
			7	8			6	1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어 넣어야 합니다.

1	9	6	5	8	7	2	4	3
8	2	4	3	6	1	7	5	9
5	7	3	9	2	4	8	6	1
9	8	2	7	1	6	5	3	4
7	6	5	4	3	9	1	8	2
4	3	1	2	5	8	9	7	6
3	1	8	6	7	2	4	9	5
2	5	9	8	4	3	6	1	7
6	4	7	1	9	5	3	2	8

① 워싱턴 중영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뷰티서플라이
 텍사스 달라스 백화점 물내
 가\$25만, 주인직접매매
 4,700sf, 렌트\$7,000(UT포함)
 (254)652-1867
 beautyworlddenton.com

일본식당 구인
 *데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경력에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스토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이민생활의 나침반
 안내광고
 (213)368-2525

꿈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안내광고
중앙일보

수선 기술자 급구
 Speed Alteration
 일감풍부, 연인컴10~12만
 부부팀 환영, 숙박가능
 배우면서 일할수도 있음
 4551 Office Park Dr. Jackson, MS 39206
(213)507-0387

HotDeal.KoreaDaily.com
 미주 한인 사회 최저가
온라인 쇼핑몰
HOT DEAL
 문의 **213.368.2611**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THE KOREA DAILY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전문기통학을 원하시는 분은
 askusa@koreadaily.com로 메일 주세요.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마 살매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특별할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기술가격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상삼음육탕 도안역사탕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담임목사님 청빙공고
 알래스카 앵커리지(Alaska Anchorage)에 위치한 알래스카 한인장로교회(Alaska Korean CRC)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1. 청빙 조건:
 - CRC 교단이 인정하는 개혁신학의 신학교(장로교단)를 졸업 후 CRC 교단 소속이시거나 CRC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으로서 목사 안수 후 미국에서 담임목사 사역과 부목사 사역으로 5년 이상의 목회사역의 경험이 있으신 분
 - 성경적 신앙인품과 리더십을 가지신 50대 전후이신 분
 - 현재 미국 거주 중이며 취업에 걸려사유가 없는 분

2. 제출 서류:
 - 한글 이력서 (가족사항/본인사진과 가족사진)
 - 자기 소개서 (성장 배경/신앙고백/목회경험/목회비전 간단명료하게)
 -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졸업증명서
 - 목사 추천서 2부 (추천자의 연락처 명시: 전화번호, e-mail) (추천자가 추천서를 직접 본 교회로 송부)
 - 소속된 교단에서 발행한 안수증명서
 - 6개월 이내의 설교 영상 1편(온라인 링크 및 설교원고 포함)
 ▶ 첨부 파일(서류들)은 모두 PDF파일 양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3. 추가 사항:
 - 제출된 서류 : 제출된 서류들은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마감일 : 2024년 4월 30일
 - 보내실 주소 : sungkwankim0105@yahoo.com kwanghwangak@gmail.com

참고 - 서류 심사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 방문 설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모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주소 알래스카한인장로교회(Alaska Korean CRC)
 709 W. International Airport Rd. Anchorage, AK, 99518

전화 (907) 632 - 3579, (907) 947 - 5645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The JoongAng Chicago, Los Angeles, Atlanta, New York, Washington DC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